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도시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藍白倉庫 (藍白倉庫)- 韓國語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中 科

李 咫 璉

2014年 2月

도시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藍白倉庫 (藍白倉庫)- 韓國語翻譯論文

指導教授 宋 炫 宣

李 咫 璉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 年 2 月

李咫璉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4 年 2 月

역자의 말

서점에 가보면 수많은 중국관련서적이 쏟아져 나오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세계 G2로 떠오른 강국이라는 중국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책이다. 그래서 ‘서민’들, 그것도 농촌에서 도시로 상경해 고군분투해 나가는 노동자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이 특히 눈에 띄었다.

평소에 중국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농민공의 존재도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 책은 작가도 농민공 출신이고, 농민공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까지 있어서 더욱 인상 깊었다.

서언(序言)에는 농민공이 탄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변화의 흐름, 그리고 작가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을 경우, 책의 주제와 작가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함께 번역하게 되었다.

중간부분은 도시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각 방면의 참고서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생략했다.

‘노동 이야기’편은 노동자 자신들이 일기, 편지, 산문형식으로 직접 쓴 글들이다. 다양한 농민공의 삶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롭고 가치 있는 부분이라 판단하여 발췌번역을 하게 되었다.

목 차

들어가며

1. 다공경제 **마오위스** /2
2. 농민공과 민공황 파헤치기 **구어권** /4
3. 농민공에게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왕통신** /15
4. 존엄 는 유량민, 존엄 는 생활 **차오커** /17
차오커vs지평 농민공은 행복한가 /22

작가의 말 지평 /29

노동 이야기 /38

1. 내 이주노동의 길 **저우수형** /40
2. 비 온 뒤 해가 뜬다 **천췌** /46
3. 추한 농민공 **장청용** /52
4. 발마사지집 **아리따움** /55
5. 분양축하행사 일기 **치우화러** /57
6. 허정원 어록 /62
22년의 노동인생과 공산노동팀 **허정원** /64
7. 언니가 동생에게 **장연평** /68
8.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장탄권** /74
9.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정신귀** /80
10. 노동가: 노동의 꿈과 실현 **지평** /85

1. 다공(打工)경제

마오위스

경제학자

이 책은 도시노동자를 위한 책으로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각종 지식들을 소개하고 어 블루칼러와 화이트칼러에게 모두 적합하다. 엄격히 말하면 블루칼러와 화이트 칼러는 확실한 경계선이 없는, 모두가 노동자(打工者)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과 다른 노동자 서적과의 차이점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3억 명의 농민이 도시로 유입되었고 수천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며 취업시장이 유례없이 확대되었다. 그 안에는 풍부한 경험과 교훈, 행복한 이야기와 슬픈 이야기가 가득하다. 이런 흐름에 따라 “노동자 가이드라인”과 같은 책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기존에 나왔던 책들과는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저자인 지평(吉峰) 본인도 도시이주노동자 출신이라 나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업무이외의 문제를 포함하여 도시이주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여러 지식을 다루고 있다. 지평은 기업관리 경험과 노사관계 분야의 학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내용을 담은 이 책을 써낼 수 있었다.

내가 이 책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책은 노동자 자신이 직접 썼기 때문이다. 입장이 다르면 느끼는 바도 다르다. 진정한 하층민의 목소리는 듣기 어렵고 정작 들리는 말은 방관자의 목소리라고 말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가끔 사물의 진상을 잘 알고 기는커녕 어디에서 주위들은 이야기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한다. 더 최악인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의 말을 오도해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까지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겪고 교훈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고 어 그 간의 교훈을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사람들을

오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많은 노동자와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80년대에 나타난 도시이주노동자 문제는 지금 취업, 사회보장, 호적, 노사관계, 공정과 정의의 문제로까지 불거졌고 아직도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을 품고 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공경제”(打工經濟: 도시 이주 노동자들의 저임금 경제모델 및 성과)를 누리고 있다. 농민공(역주: 농촌 출신 도시이주 노동자) 문제는 비정부기구, 학계, 언론 및 사회 각계와 연관되며 정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이 책을 통해 그들도 농민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리해보면 도시노동자의 기본권인 권익, 일할 권리, 삶의 권리, 생명을 위협받지 않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그들에게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율하며 단체협상을 할 권리, 자유롭게 일하고 부당한 사안에 대해 고소할 권리가 으며, 소송 접수나 입안이 불가 될 이유가 없고, 정의롭게 사건이 해결될 수 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 9일 베이징

2. 농민공과 민공황 파헤치기

구어권

전국총노사회

민주관리부부장

나는 우연한 기회에 노사관계문제를 연구하는 곳에서 지평을 알게 되었다. 당시 노사관계 및 노동법학계에서 그를 아는 사람은 아마 별로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청백창고: 도시에서 이주노동자로 산다는 것>의 원고를 내밀며 내게 조언을 청했을 때 (원제는 “노동자 수첩”이었다) 나는 궁금하면서도 놀라웠다. 농민공에 대한 책, 농민공을 위한 책 등 이주노동자에 관한 책들은 이미 시중에도 나와 있었다. 그러나 전자는 대부분 농민공의 고달픔, 고군분투, 성공과 실패를 다룬 것이고, 후자는 대부분 법률지식에 관한 안내서로 어떻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소송을 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이었다. 대체로 제 3자가 농민공을 관찰하고 가르치는 느낌이었기에 작가와 농민공과의 관계는 그다지 가깝거나 친밀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평은 자신이 바로 농민공이라고 하며, ‘농민공’의 눈으로 이 책을 만들고 썼다. 때문에 그는 이 책을 참고서, 이야기책 그리고 사상을 결합시킨 책이라고 한다. 내용은 크게 노동현황, 개인발전 및 도시생활로 나뉘는데, 70%는 도시노동자가 직접 쓴 글이다. 블루컬러, 화이트컬러, 농민공집단과 기업관리자 모두가 그의 독자이다. 그는 스스로 “자기교육과 공론화하기”가 이 책의 특징이며 형식과 내용 역시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한다. 솔직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이한 것만은 확실하다.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노동자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각도에서 쓰였다는 것이며, 노동자가 단순히 노동력이나 팔아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인이라는 각도에서 쓰였다는 것이다. 후자를 특히 강조한 이 책은 노동자를 기업에 팔리는 상품이나 돈벌이 수단이 아닌, 피와 살이 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써 바라보고 다. 때문에 지평은 노동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 어떻게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쟁의 소송을 하는지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도시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사회 권리보호수첩이나 가이드북에서 자주 나온다. 지평은 노동권, 노동쟁의 등 소위 “상식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도시생활, 자신의 특수한 신분,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미래에 관해서는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어떻게 일자리를 찾고 생활하는지 등 농민공이 도시에 상경해 일하며 살아가는 족적을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된다. 책은 모두 노동 편, 업무 편, 자기계발 편, 개인업무 편, 도시생활 편, 성, 연애, 결혼과 가정 편, 270개 지식 편, 노동이야기 편, 사회(노사관계)목소리내기 편 등 총 9 편으로 이루어져 다. 그는 한 노동자가 도시에서 일하며 살아가다 부딪히는 각종 문제를 모두 담으려 애썼다. 특히 긍정적인 것은 지평이 도시노동자의 사회인, 도시인의 생활영역에 더욱 주목하며 그들과 접촉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도시생활 지식,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사람으로써의 도리’가 모두 담겨 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등한시 하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이주노동자가 바쁘게 오가는 도시의 과객이라고 여기며 그들은 돈 벌기에만 급급하고 휴식도, 놀이도, 사교활동도, 독립적인 생각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 존중과 인격, 반듯한 용모도 필요치 않은 사람, 사랑과 우정, 성과 가정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최소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말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도시들이 이주노동자를 멸시하고 경시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민공황(民工荒):’현상의 심층적인 원인이다. 마땅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존중 받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기업, 이런 지역, 이런 도시에 남아 으려 하겠는가. 그래서 지평은 앞부분의 노동지식 편에서 애매한 도리를 말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문제 지식, 구체적인 해결방법 등에 더욱 주목했다.

왜 농민공이라 칭하는가

‘농민공(打工者)’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애매한 말이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농민공의 뜻은 각기 다르게 이해되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 수많은 논쟁들은 이 문제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마치 작가가 스스로를 농민공이라고 경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지평은 농민공의 정의를 확실하게 구분 지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80년대 중후반, 연해지역의 공장이 떠오르며 공돌이, 공순이라는 말이 농민공으로 변천되었다. 그 후 한동안 아르바이트, 노동공, 이주노동자, 임시직, 시간제직원, 계약직, 블루컬러, 화이트컬러, 농민공, 인부 등 다른 말로 불리었다.”라고 하는 그의 정의를 보며 그의 곤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여러 호칭들은 이 책에서 같은 뜻으로 표현된다. 즉 고향을 떠나 일을 찾아 도시로 온 농민공과 노동자이다. 나는 누가 가장 먼저 ‘농민공’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당시 어떤 마음으로 이 단어를 썼는지, 또 어떤 배경이 있는지 늘 궁금했다. 인터넷 검색과 전문가를 통한 문의를 해보아도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는데 대략 90년대에 나온 말인 것 같다. 농민공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농민공은 농민도 공장노동자도 아닌, 그냥 농민공이다. 둘째, 농민공은 도시에 상경해 노동으로 생계를 도모하는 농촌 호적의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농촌호적의 노동자와 비슷한 정치적 권리, 경제력을 가지고 으면서 호적은 농촌이 아닌 인부나 임시직, 계약직, 이주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농민공은 정치적 권리나 경제력에 있어 인부나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한을 갖지 못하는 모든 도시거주 이주노동자이다. 농민공은 매우 복잡하고 애매한 개념이다. 농민일까? 혹은 공장노동자일까? 시골기업에서 일하는 공장노동자일까? 혹은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출신 공장노동자일까? 지평의 곤혹스러움은 우리 대다수의 곤혹스러움이기도 하다. 엄격히 말하면 중국은 이제 농민공이 존재하지 않는다. 1995년 <노동법>이 정식 발효된 이후 모든 기업은 채용 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노동계약을 통해서만 노사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 전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신분이었든 계약 체결 후에는 모두 기업의 정식 직원이 되는 것이다. 다른 점이라면 계약기한, 근무처, 직책, 근무시간, 임금기준 간의 차이겠지만 반드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통일된 최대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관련 규정, 최저임금기준과 초과수당 기준 관련 규정, 노동안전위생기준 관련 규정뿐 아니라 사회보험과 노동쟁의처리 규정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노동법상 이들은 신분의 차이가 없는 똑같은 기업구성원이지 농민공이 아니다. 사실 노사관계에서 농민공과 현지직원 간의 차이는 현저하게 나타난다. 우선 임금, 산업재해 대우 및 복지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준법정신 부재로 등한시하는 것일 뿐 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차이는 사회보험 문제와 복지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노사관계를 떠나 사회문제, 신분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농민공 자녀의 취학, 농민공의 거주문제처럼 농촌호적이 그 원인이다. 또한 농민공이라는 호칭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정부분건이나 정책에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농민공의 불리한 면만 보았지 농민공의 유리한 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국제금융위기로 많은 농민공이 정리 해고되었지만 대규모 사회불안은 야기되지 않았다. 농민공은 도급지(承包地), 택지(宅基地), 주택과 같은 발붙일 곳이 있기 때문이다. 도급지, 택지는 도시화로 인해 앞으로 상당한 자본이 될 것임에 확실하다. 농민공이 실업자 신세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출로나 보장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시 노동자계층의 근로자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자 농민공이란 칭호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와 가치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시에서 일하며 생계를 도모하는 농촌호적의 사람을 전형적인 농민공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농민공을 자칭하는 지평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혁개방 이전에 ‘농민공’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지평의 말은 대체로 맞다. 그러나 당시에 도 농민공이 있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 때부터 계절노동, 교대근무, 임시직 등과 관련한 제도가 있었고 교대근무 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었다. 지평은 “개혁 이후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어 일을 하며 ‘농민공’이라는 말이 생겨났으며, 글자 뜻은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이지만 실제로

는 도시에서 과거 육체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 그러나 마땅한 복지 및 사회보장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존재한다.

민공황(民工荒) 어디에서 오는가

해마다 음력설이 지나면 일부 지역에서 구인난이 발생한다. 하지만 올해는 “민공황(民工荒: 노동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상황이 특히나 심각해 관련 부서가 크게 주목하고 있다. ‘민공황’은 우리사회와 기업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 기업의 발전모델과 경영이념에는 심각한 편차가 존재하고, 대체로 안정된 노사관계에는 구조적인 위험이 숨어 있으며, 기업의 경영모델을 포함한 중국의 과거 경제발전방식과 노사관계 인식에 대한 폭넓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는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구인난은 오늘날에야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개혁개방 초기 수많은 농민공이 개혁개방의 전선으로 유입되며 마치 노동력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특정 시기에, 특정 직무에서 노동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공황 문제는 90년대 중후반 대중의 이목을 끌었는데, 음력설 전후 특히나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음력설 전에는 주로 가정부, 병원 조무사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노동자들이 부족했다. 기업에도 성수기인 설 연휴를 피해 고향에 내려가려고 미리 일을 그만두는 노동자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기업의 농민공 부족문제는 음력설 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민공들이 고향에 내려간 후에 건강악화, 결혼, 가족부양 등 여러 이유로 다시 외지에 나와 일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임금이 턱없이 낮고, 근로시간은 길면서 근로 환경도 열악하다는 점이다. 일부는 대우가 좀 더 나은 지역이나 기업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그 예로 한 동안 주장(珠江)삼각주지역에서는 노동자 부족현상이 나타났지만 양쯔강(長江)삼각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지

역 간 차이라고는 양쯔강삼각주의 많은 기업이 수당 외에 숙식을 제공했다는 점 밖에 없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농민공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이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일하며 살아가느니 이것저것 따져보고 아예 처음부터 도시로 나오지 않으려는 이도 있었다. 당시 정부와 노조도 더 빠르고 방대한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했다. 일부 농민공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에 일자리센터를 설립하고, 노조도 이에 따라 농민공 배출지와 이주 목적도시를 연계한 권리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일부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해주거나 농민공의 귀향교통까지 지원해주었다. 이처럼 일손부족현상은 한동안 일부 지역의 몇몇 기업들에게서만 나타났고 규모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민공황’현상은 ‘우리의 노사관계와 기업의 경영이념이 지속가능한지,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아쉽게도 대답은 ‘아니오’이다. 오랫동안 농민공의 임금이 너무 낮고, 근무시간은 길며, 근로조건이 열악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임금체불과 불법해고도 다반사이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좀 더 나은 조건이 생길 경우 ‘노동력 착취식 공장’에 ‘민공황’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노동자의 소망과 선택의 자유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먼저 중국의 정책이다. 농업발전 지원 정책이 공장노동자와 농민의 소득격차를 축소시켰고, 서부 지역개발과 같은 정책이 각 지역의 경제 발전을 균형적으로 이끌며 농민들에게 고향 근교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농민공에게 경제발전지역에 나가 일하는 것은 적은 소득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매년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에 다녀오는 고생스러움과 비싼 교통비 그리고 호적과 신분으로 인한 차별, 타향살이와 성적욕망... 이러한 것들이 외지노동자와 농촌현지 노동자 간의 소득대비지출과 행복지수의 격차를 벌려놓고 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다시는 타지에 나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민공황’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농민공의 구성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1세대 농민공과 2세대 농민공의 가치관은 크게 다르다. 1세대 농민공은 오랫동안 농사를 해왔기 때문에 힘

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참고 견디려는 기질이 다. 농사일은 현금소득이 없으므로 외지에 나와 일하며 현금을 손에 넣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타지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돌아가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는 것이 그들의 직접적인 목표였다. 하지만 2세대 농민공의 경우 교육수준과 지식수준의 향상, 도시화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인생의 목표가 1세대와는 크게 달라졌다. 2세대 농민공의 절대다수는 도시에 남아 진정한 산업노동자이자 도시주민이 되고 싶어한다. 일하는 목적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더 많이 버는 것’이 되었다. 그들은 생존문제뿐 만 아니라 발전문제까지 해결하고자하며, 자기발전과 인격 및 존엄성에 더욱 주목한다. 기업이 이러한 차이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임금이 높더라도 구인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과거의 고용이념에만 머물러 있는 기업들은 민공황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근 많은 구직자들이 선전(深圳)팍스콘사(역주: 애플의 중국 하청업체인 타이완(臺灣)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별때처럼 몰리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민공황’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팍스콘도 임금은 낮지만 고용부분이 조금 규범화되어 어 제 때 수당을 지급하고 체불만 하지 않을 뿐이다. 작업복 세탁을 회사가 책임져주기 때문이라도 말하는 구직자도 많다. 이것은 보통 빠링허우, 지우링허우(80년대, 90년대에 태어난 세대)농민공들의 특징이다.

‘민공황’ 문제가 지금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것은 사실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민공황’은 또 다른 위기에 불과하다. 금융위기가 막 발발했을 때 처음으로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었던가. 공장장의 야반도주와 정리해고 바람, 임금체불과 감봉이었다.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뒤에는 ‘농민공은 마르지 않는 자원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자들이며, 매매되는 상품이자 자본을 먹고 사는 대상’이라는 논리가 있었다.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경제는 단연 독보적인 발전양상을 보였다. 누가 이렇게 막중한 부담을 짊어졌을까? 미국 <타임즈>지는 표지를 통해 그 주인공이 바로 중국 농민공이라고 전 세계인들에게 알렸다. 포스트 금융위기에 나타난 ‘민공황’은 중국 경제의 빠른 발전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전통적 노사관계와 기업경영이념에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었다. ‘정리해고 바람’

과 ‘민공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제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기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보호였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감축이 있었다. 양심 없는 공장 주인들이 공장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도 허다했다. 당시 기업의 발전 모델과 경영 이념도 시험대에 올랐는데 기업가와 자본가 모두 기업을 개인사업으로써 처리할 것이냐 돈벌이 수단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며 각자의 이념에 따른 행동을 취해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국제금융위기의 타격 속에서 <노동계약법>은 노사관계 안정과 안정적인 경제성장 보장에 큰 역할을 했고 동시에 많은 기업을 골치 아프게 하기도 했다. <노동계약법>에 따라 정리해고를 하지 않은 기업들은 결국 최후의 웃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기업에는 ‘민공황’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으며 팩스콘처럼 구직자들이 몰릴 것이다. ‘정리해고 바람’과 오늘날의 ‘민공황’의 관계는 아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국제금융위기의 소용돌이로 중국기업까지 휘청거릴 때 많은 농민공들은 직장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당시 실직한 동관(東莞)의 영향력 있는 기업직원들이 회사매니저와 사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었는데 노동계약 해지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기업의 일부 관리자들이 내가 투자한 기업은 내 소유고, 내가 결정하면 그만이라는 것, 노동자는 구매한 상품이며 사장인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불만이 으면 가서 고소하라는 식의 생각과 방식이 몸에 베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들에게 문제해결의 출로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 더욱 격렬한 방식으로 기업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오랫동안 존재했었으나 기업이나 사회의 이목을 끌지는 못했다. 오늘날 ‘민공황’현상은 이 문제를 테이블 위로 끌어다 놓았다. ‘민공황’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그럴 듯하게 말해보면 자신의 업보이기 때문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위기 때에는 제 발로 노동자들을 뺄 차더니 이제 시장이 생기니 노동자를 다시 불러낸다. 그런다고 그들이 돌아올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예전부터 누적되어 온 풍부한 농촌노동력이 있었다. 현금 몇 푼 벌려고 외지

에 나가 일하는 이들의 권리보호 의식과 능력은 너무나도 일천하다.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참다참다 직장을 바꾸고 만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공들이 이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분노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신세대 농민공의 생각은 아마 더욱 다를 것이다. 오늘날 ‘정리해고 바람’은 문제를 표면화 시켜주었고, 특히나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금융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감원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감원여부 고려 시 합법적인 감원을 하는 기업은 비난할 것이 못 되지만, 감원 할 상황이 아니면서도 금융위기를 틈타 일방적인 감원을 감행하는 기업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지금 이랬던 기업들은 후회하고 을 것이다. 위기 후 시장이 생기고 상황이 나아지면 노동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아야 할 점은 이러한 노동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의 행위가 그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은혜는 은혜로 돌아올 수 하지만 원수가 은혜로 돌아오란 법 없다. 기업은 반드시 이 도리를 알아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정리해고의 바람 속에서 노동자들을 버리지 않고 금융위기를 버텨낸 기업의 노동자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일감이 생기자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다. 이들은 심지어 임금인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민공황’이란 먼 나라 이야기이다. 이런 기업들이 더 높은 사회적 명성을 얻고, 더 많은 구직자가 몰린다는 점이 이를 설명해 준다. 상기문제는 기업의 발전모델, 경영이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최근 미국에서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품질관련 문제로 의회의 공격을 받자 미국 내 도요타 직원들이 미국 의회 앞에서 도요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와도 미국 도요타에서는 인원감축도, 직원파견도 하지 않고, 종신고용이라는 일본식 고용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도요타 직원들은 애사심이 남달랐을 것이다. 중국 기업들도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기업의 발전이념에도 변화가 어야 하지 않을까. 허무하고 형식적이며 일방적이고 단기적이며 꺾테기 뿐 인 노사관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과도한 노동시간과 저임금 모델은 지속될 수 없다. 중국 기업들이 이에 대한 고민과 조정이 길 바란다.

민공황 어떻게 해결하나

기업의 발전모델로 보면 오늘날 중국의 경제 발전은 이미 전환점에 다달았다.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에너지 소모형, 저임금, 저효율의 산업구조를 가진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GDP성장 뿐 아니라 사회화합, 공정과 정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부가 노사관계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노동법>의 집행 강도가 높아지고, 농민공의 권리의식도 강화될 것이므로 고용방식과 경영이념을 바꾸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어질 것이다. 노동력 공급상황으로 보면 산아제한정책으로 인구급증이 억제되었으나, 고령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앞으로는 새로운 경제노동인구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일본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때에는 진정한 ‘민공황’ 노동자 부족 문제가 실질적인 난제가 될 것이다. ‘민공황’문제와 함께 대학생 취업난, ‘개미족(역주: 열악한 거주환경에 모여 생활하는 저소득 대졸자) 등 현상은 중국이 지금 직면한 것이 진정한, 절대적인 노동자 부족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제조업 이후 산업의 노동자부족 현상이란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에 의존한 경제는 지속가능 할 수 없다. 훗날을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환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주목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국제금융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자본은 만능이 아니고 기업은 투자자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투자한 사람이 소유한다는 논리는 투자한 자산에만 적용되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다. 기업은 생산과 경영의 성질을 가졌으며 사회적인 대량생산 경제조직이다. 기업이라는 경제조직은 자본과 노동력으로 이루어져 으며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 된다. 투자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 출자자가 자본을 내세워 만든 기업에 일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수주량이 많을수록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만 보고 기업의 이윤은 논할 수도

없을 것이다. ‘민공황’현상은 우리에게 살아 는 교훈을 주었다. 투자한 사람이 소유하고 그 사람이 절대권력을 갖는 것은 틀렸다는 것,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력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바퀴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그 차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계속해서 전진하고 싶다면 두 바퀴의 구동력을 잘 유지하고 조절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다. 이는 실제로 발전단계에 는 중국기업에게 경영이론과 이념에 대한 더욱 심도 는 연구를 제시했다. 더 많은 농민공들이 지위와 존엄성을 가진 산업노동자, 관리자, 현대도시인이 될 수 도록 우리 모두 농민공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자. 남방일보(南方日報)출판사가 이런 책을 출판하는 것에 대해 남방일보의 넓은 식견과 높은 수준에 찬사를 보낸다.

3. 농민공에게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왕통신

선전시 총노조

부주석

지평이 심혈을 기울여 <도시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이란 책을 써서 도시이주노동자에게 타지에서 노동, 도시생활, 개인발전, 직업계획, 인생가치관 등 여러 분야의 도움을 주려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도시노동자의 삶을 걸어온 작가 지평은 도시노동자의 고달픔과 그들의 소망과 욕구를 몸소 느끼고 겪어왔다. 이 책은 많은 농민공, 특히 신세대 농민공의 도시생활과 생존에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참고서 역할을 할 것이다.

선전시 노동조합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선전의 신세대 농민공은 전체 농민공의 87.5%에 달하며 평균연령은 26세이다. 그들은 젊고 활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생활에 융화되기 힘들고, 지식과 기술수준은 산업고도화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업무, 생활, 자아 발전 등 여러 방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들의 도시생활을 더욱 힘겹게 하고 다. 건전한 삶의 자세, 교육수준 및 직업기술, 생존력과 자기개발은 신세대 농민공의 자아실현에 필요한 것이자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발전지역 노동자에게 필수적이다.

노동력은 특수한 자본이다. 이러한 특수한 자본의 가치는 주로 학습과 훈련에서 결정된다. 외지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는 가진 것도, 의지할 곳도 없다. 돈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그들의 유일한 밑천은 단순 노동력이다. 그 곳에서 발붙이고 살기 위해서는 도시와 융화되어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키워야 한다. 배우고 훈련하고 자질을 길러 자신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는 산업화 초기에 정부주도로 사회와 기업이 농민공에 대한 대규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농민, 목축민들을

사회화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로 배양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전형을 이루었다. 오늘날 IT산업, 원자력산업의 주력이 바로 당시 농민공의 자손이다. 후에 발전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도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훈련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는 농민들에게 단순노동만 시키며 빈민가에서 생활하게 했고, 결국 이것이 심각한 빈부격차와 사회분열을 초래했다. 현대화 사회에서는 물질적 조건에 대한 의존은 상대적이거나, 사람에게서는 절대적인 자질을 요구한다. 사람의 소양을 높이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선전에서 빈부격차해소와 공정사회 실현, 품위 는 노동, 사회화함에 어 중요한 것은 노동자에 대한 교육확대이다.

노동력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자질이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화된 도시는 세워질 수 없다. 새로운 발전모델은 높은 자질을 지닌 노동집단을 필요로 한다. 선전시위원회, 시정부도 이미 노동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이들이 지닌 거대한 잠재력을 분출시키는 것이 조화로운 선전 만들기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다. 선전의 노동력은 전국 각지에서 온다. 그들에게 선전이 인생에서 스치는 곳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학교이자 삶의 터전이자 그들의 자질을 끌어올리고 인생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는 낙원이어야 한다. 선전은 그들에게 감사하고 보답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개혁개방의 성과를 마음껏 누릴 수 도록 해주어야 한다.

더 많은 사회기관, 기업들이 신세대 농민공의 자질향상에 주목하고 노동자의 공익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배우고 싶은 자가 충분히 배울 수 도록, 농민공에게 저렴하고 풍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습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농민공 대상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일 것이다.

2011년 3월 12일 선전

4. 존엄 있는 유랑민, 존엄 있는 생활

차오커

남방도시보

편집장

지평의 경력은 매우 단순해 보인다. 그는 선전에서 16년 동안 일하며 경비, 운전 기사를 하다가 꽃 배달, 식당종업원도 했었고, 인적자원관리직까지 했었다. 어떻게 보면 지평은 미스터리한 사람이다. 농민공인 그가 교수와 기업가들과 노사관계발전포럼을 발족했다. 지금 그는 다시 편집장으로서 정부, 기업, 농민공들, 학자와 사회인사들에게 도시노동자들이 ‘자기교육과 목소리내기’을 할 수 있는 책을 함께 만들자고 하고 다. 그의 행동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한다. 무엇이 그의 글쓰기 욕구를 자극했을까. 무엇이 그를 농민공문제에 이토록 높은 관심을 갖게 했을까. 또 어떤 능력이 그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을까.

의의와 책임감

나는 자신을 ‘농민공’이라 자부하는 지평의 용기와 배짱 때문에 그를 기억한다. 2008년 9월 6일, 광둥 개혁개방 30주년을 기념하는 선전의 한 포럼에서 그는 일어나 큰소리로 질문했다. 농민공의 신분으로 말이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의 인터넷 아이디인 ‘농민공’은 이미 꽤나 유명했다. 그가 주최하는 노사관계발전 포럼은 2008년부터 해마다 열린다. 기회만 생기면 그는 어디든 빠지지 않고 참여해 농민공의 대변자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난 그제서야 “농민공”의 뜻심과 식견을 몸소 느꼈다. 2009년 5월 8일 남방도시보가 선전에서 언론관계정상포럼을 개최했을 때의 일이다. 이 포럼은 언뜻 보기에 농민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였지만 뜻밖에 그가 찾아왔고, 900위안으로 세계최고의 마케터 밀턴 커틀

러와의 오찬 경매에 당첨되었다.

지평이 말하는 농민공문제에 대해 커틀러는 “현재 중국의 농민공문제는 모든 서방의 선진국들이 겪어온 과정이다. 미국도 오랜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지금의 농민공 문제는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났다. 중국은 ‘도시의 인부가 되겠다’는 농민공의 지속적인 자아발전 동력이 있고, 이 과정은 아마 미국보다 빠를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가볍게 대답했으나 그 내용은 핵심을 짚고 있었다.

그렇다. 농민공은 도시에서 일하는 유랑민이 아닌, 도시 노동자가 될 것이다. 이 과정이 얼마나 길고 험겨울지에 대해서는 온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 환경, 특히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말하다 보니 내 직업까지 가게 됐다. 내가 몸담고 있는 남방신문언론그룹, 남방일보, 남방주말의 관심, 21세기 경제신문, 남방농촌신문, 남방도시신문은 각도와 방식이 서로 다를 뿐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사 하나하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 빗물이 바위를 뚫듯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지평이 내게 준 이 책의 원고를 읽으며 나는 무언가 빗지고 있다는 느낌과 빗을 지고 싶다는 충동이 동시에 들었다. 많은 주변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 세대가 농민이었고, 초등학교 친구들 대부분이 지금도 농민이다. 도시로 이주해 온 지 이십여 년. 지금은 영향력 있는 도시신문사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농민의 습성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다. 나는 아직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국수와 고구마이다. 이것은 아마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 가장 좋아하는 차는 이제는 모든 찻집을 뒤져봐도 사지 못할 보리차이다. 어릴 적 흠내음이 나는 듯한 보리차 말이다. 대학입학시험에 붙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수많은 농민공 중 하나였을 것이다.

“공론화하기”의 기본

최근 농민공집단이 크게 주목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분야에 해결해야 할 문

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다. 사회 각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농민공 문제를 개선할 수 는 힘으로 작용하는 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것이 아마 지평이 농민공에게 “자기교육”을 주문한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이 농민공 문제해결의 가장 큰 동력이다.

이 책의 목적은 “상식+수단+생각”이다. 상식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활용 될 수 는 주제와 농민공 자신이 쓴 이야기가 으며 사회 각계의 농민공문제에 대한 생각과 충돌도 다. 적절한 삽화와 글로 농민공의 일과 도시생활, 개인발전 세부분을 잘 묘사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책의 농민공집단에 대한 배려와 관심, 노사관계 촉진에 이 책이 쓰이길 바랐다. 상식을 알리고 사상으로 농민공 집단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응원하는 뜻에서 말이다. 지평은 특히 기업, 정부, 노조 및 노사관계 관련업계에서 인정받고 다. 그는 진실 되고 현실적이다. 어쩌면 농민공이라는 출신이 그를 무엇이든 현실적인 가치에 집중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나는 이것이 지평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책을 통해 지평이 목표를 위해 들인 노력을 볼 수 었다. 이 책 한편이면 정부든 기업이든 과거 농민공에게 가졌던 어려움이나 편견을 대충 풀어낼 수 다. 사실 ‘공론화하기’의 기초도 여기에 으며, 이것이 지평이 신경을 쓴 부분이기도하다. 그는 농민공 문제에 어서 현실적으로 노동, 자본, 정치, 기업, 사회 등 각 분야 인사가 모여 ‘공론화’ 할 수 는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었다. 그래서 이들을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고 싶었다. 각자의 의견 차이는 을지 언정 모두가 공감하는 기초가 어야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 될 수 기 때문이다.

이 책에 부족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의 글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 다. 지평 자신도 이 점을 의식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는 농민공의 “자기교육”을 강조했다지만 자기 자신도 이제는 일반 ‘농민공’과는 달라졌다. 이것이 때로는 그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게 하기도 했다.

내용면에서 이 책도 부족한 점이 다. 농민공이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움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 부분은 소홀한 것 같아 아쉬운 감이 다.

농민공의 미래, 중국의 미래

농민공 문제는 농민문제, 도시화 문제에 버금간다. 어쩌면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일지도 모른다. 중국에는 2억여 명의 농민공이 다. 그들 뒤에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을까? 누구나 고향이나 농촌에 친척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이미 도시에 정착해 편안히 살아가는 농민공의 자손이나 그 후대 사람들도 모두 농촌 친척과 친구들, 이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농민공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심은 동정이나 배려가 아니다. 최소한 ‘농민공은 도시의 3D직종에 종사한다던지, 도시인들이 먹고 노는 데 치다꺼리만 한다던지, 공장에 처박혀서 생산 작업만 할 수 있다던지’ 등과 같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도 생활이 고 감정과 욕망이 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가지고 다. 그리고 현대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회발전의 기쁨을 누릴 수 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줘도 본전인데 마땅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서 보답만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어도 결국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건 자신의 몫이다. 어떤 사회환경과 생존환경에 든 불공평한 운명을 넘어서서 꿈을 찾아살아가고 존엄성 있는 생활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결국 스스로 깨닫고 노력하기에 달려 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감정을 대신 느껴줄 수 없으며 내 생각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민공의 생각과 행동은 특별한 의미가 다.

현재 전국에는 2억여 명의 농민공이 다. 네 명 중 한 명은 광둥에 있을 정도

로 광둥에는 많은 농민공이 있다. 때문에 광둥에서는 일찍부터, 심각한 농민공 문제가 일어났다. 광둥 농민공 역시 극심한 신신의 고통을 겪었고,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었으며 자기고민도 하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바로 쓰촨의 저우리타이라는 변호사가 선전에 와서 농민공 산업재해사건을 처리하며 단박에 스타가 된 일이다. 그는 그 후 약 2천여 건의 농민공 사안을 처리하고 선전시 관련 법률까지 제정하며 “농민공변호사”로 불리었다. 내 동료인 천원딩은 9년 동안의 추적 끝에 2009년 11월 <바닥에서의 탈출: 문맹 저우리타이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까지>라는 책을 냈다. 그는 “농민공 변호사”의 개인적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법 제도 개선’이라는 제목에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는 저우리타이의 성장과정과 고군분투를 스토리로 엮어 내고 싶어하는 듯 했다. 그는 책의 끝머리에 책을 쓰며 깨달은 바를 써넣었다. “미운 오리새끼는 백조가 될 수 없지만 백조의 연못을 빼앗을 수는 없다.”

지평과 저우리타이 등을 포함한 일부 농민공 대표들은 선전에서 업적을 쌓고 광둥에서 이름을 날렸다. 숨겨진 이치가, 희미한 희망이 아마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는 이런 농민공 대표들은 더 이상 농민공 같지 않다고 말한다. 농민공이 아니라는 말이 어찌면 맞는 말일지 모르겠다. 아니, 오히려 그게 낫다. 농민공의 미래가 꼭 농민공이란 법은 없으니.

2010년 8월 경제특구 30주년을 기념하며 원자바오 총리는 그의 바람을 두 차례 내비쳤다. “제 정치이념은 네 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존엄성 있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를, 안전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기를,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가득하기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하기를” 전국의 모든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길 갈망하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원총리가 말하는 ‘사람’은 모든 중국인, 너와 나, 농민, 농민공과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2011년 2월 18일 광저우(廣州)

차오커VS지평: 농민공은 행복한가

도입

끊임없이 따져 묻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평의 자세이다. 무엇을 탐구하든 그는 자신이 보고 느낀 바를 용감히 말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부딪히고 협력하고 싶어 한다. 득실을 따지지 않는 이러한 끈기는 농민공에 대한 그의 생각을 더욱 깊이 깨 해주었고, 농민공 문제에 관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해주었다. 농민공이라는 과거 이력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한 그의 언사는 그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하는 걸까? 왜 그런것일까? 농민공 문제에 대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남방도시보의 총편집장이 질의자로 나섰다. 농민공 문제는 남방도시보와 남방신문 계열의 다른 언론들이 모두 오랫동안 주목해왔다. 차오커 자신도 역시 농민공문제가 중국 도시와 과정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국 현재사회 구도와 체제에서 농민공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출로는 어디인가? 도무지 대답을 찾을 수 없었던 와중에 지평의 연구는 차오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농민공문제는 두 사람의 공통관심사이지만, 둘은 많은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다르다.

전국 최고의 도시신문 총편집장과 농민공 대표 간 대화에서 현대도시가 농민공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지평에 관해

차오커: 선생님은 중국 노사관계의 핵심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평: 직접적인 핵심은 노동자와 사용자이지요. 본질적인 핵심은 생활방식의 선택에 있습니다.

차오커: 선생님의 꿈은 무엇인지요? 어느 정도 실현가능한가요?

지평: 꿈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지요. 저는 과정을 책임지고 결과는 하늘에 맡깁니다.

차오커: 현재 체제에서 노사관계란 농민공과 기업 간의 대립문제 아닌가요?

지평: 아니에요. 실제로는 대립이 부족합니다. 대립이 없으니 불균형과 안일함이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노사관계 정립과 해결에 불리합니다.

행복감

차오커: 선생님이 볼 때 농민공 집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연봉? 도시호적? 더 많은 취업의 기회? 사회보장? 정책지원? 어떤 것이 그들의 소망을 가로막고 으며 사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지평: 가장 바라는 것이라면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입니다. 이들의 소망을 가로막고 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인간다움을 모른다는 것에 습니다. 자신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는 다른 사람이 부여해야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죠.

차오커: 그들의 성취감과 만족감은 어디에서 오나요?

지평: 그런 게 기는 한가요? 전 정말 모르겠네요.

차오커: 경제적인 소득 외에 그들은 행복감에 어 도시시민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임금인상 이외에 그들의 행복감을 증대시킬 수 는 요소는 무엇이지요?

지평: 농민공에게 행복이란 게 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다면 분명 사랑처럼 사는 것, 사람다운 존중을 받는 것일 겁니다. 우리 둘 사이처럼 말이죠.

장벽과 융합

차오커: 도시화가 농민공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어떤 것이 을까요? 농민공이 도시에 가져온 변화는요?

지평: 도시화는 그들 자체를 변화시켰고 이로 인해 외적 욕망이 커졌습니다. 사람다운 존중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좌절감과 허전함을 옷이나 헤어스타일, 인터넷채팅 같은 것으로 채우려는 거지요. 성 정체성 혼란이 오기도 하고요.

도시에 가져온 변화라면 경제 발전과 계층의 탄생, 그리고 여러 고층빌딩이 겹치요.

차오커: 사회적응력에 어 그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요? 성격, 능력, 마음가짐, 인생설계, 전체를 보는 시야 등에서요.

지평: 삶의 믿음, 가치관, 의욕이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자신의 생활에 대한 위기감은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에 휩쓸려 허황된 것만 좇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계층의 집단 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노동에만 국한되어 어,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자신이 사장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개인의 동력이 부족하고 자립심은 키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는 거지요.

차오커: 요즘 신세대 농민공이 많아지고 습니다. 그들은 교육수준이나 가치관 등이 윗세대와는 다르지요.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시적응력은 윗세대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지평: 그들은 중시되지도, 이해받지도 못합니다. 이러다가는 적응력이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차오커: 어떤 이들에게 도시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에 지나지 않겠지요. 선생님이 알기에 농민공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가 도시에 남고 싶어하나요? 현실적으로 도시에 남을 수 는 능력이 되나요?

지평: 전체적으로 보면 윗세대 중에는 소수만이 도시에 남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평생 도시에서 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말하는 이도 습니다. 하지만 신세대 농민공 대다수는 도시에 남고 싶어합니다. 도시가 그들을 환영하든 그렇지 않든 말이죠. 농민공은 능력이 없지만 그렇다할 출로도 없어요. 도시화와 GDP증가로 인해 이미 모든 생활방식이 변했어요.

차오커: 지금 농민공에게 도시시민과 같은 대우를 해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까요? 대부분이 도시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평: 어떤 결과가 있겠냐고요? 먼저 폭죽이 동나겠지요. 계층 간 화해가 이루어지고 동족간의 융화로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는 거쳐 가는 곳이나 분쟁의 장소가 아닌,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서로간의 믿음과 진심,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인간적으로 생겨나겠지요. 기업의 이윤은 크게 증대되고 도시는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입니다. 대도시의 인구는 크게 줄거나 자연스레 균형을 되찾을 것입니다. 중소도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지역 간 경제 및 사회격차가 좁아지며 거주 및 생활의 질이 모두 향상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가난한 사람들은 평등하고 존엄성 있는 생활을 하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양호한 경제발전과 같은 부류의 문화 및 사회적 관계가 형성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 생활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평등한 전원생활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허황된 꿈을 꾸거나 공상과학 소설 쓰는 거 같나요?

'약자' 에 대한 인식

차오커: 한 가지는 생각해 볼만 하군요. 지금 사회에서 농민공은 비농민출신 노동자와 큰 차이가 있나요?

지평: 몇 년 전에는 약간 할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차오커: 같은 도시 사람들 중에도 사실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있지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균등한 분배보다는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규칙 그리고 동등한 기회와 기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농민공은 어느 분야에서 가장 약자에 속할까요? 지금은 이미 시장경제가 이루어졌으니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요소의 변화는 지극히 정상에 속하지요.

지평: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규칙이 으면 사회적 강자와 약자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선진국에도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존재합니다. 강자와 약자라는 말이 중국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인 문제는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불공정함으로 인한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기준은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규칙으로 강자가 된 자들과 약자로서의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회, 하나의 체제가 제도적으로 약자들도 본래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약자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농민공의 취약점은 자율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인의식도 없고 집단 내 계급의식도 없다는 것이 두드러지는 문제점입니다. 그들은 농민공인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언젠가 사장이 되어 이 상황을 해결할 거란 헛된 상상을 합니다. 취약점은 돈이 얼마나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오히려 가장 힘 있고 강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거나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야말로 진정한 약자입니다. 만약 억만장자가 구걸하는 자에게 1위안도 베풀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1위안을 내준다면 억만장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셈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변화

차오커: 정착문제는 사실 농민공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도시이주 화이트컬러 노동자,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평: 정착문제는 농민공이 시급하게 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사관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농민공의 사회보장문제와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학생(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 실업계생, 직업전문학교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많은 화이트컬러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책의 머리말에 여덟 종류의 집단이 모두 나의 독자라고 쓴 이유입니다. "대학생도 농민공이다"라고 묘사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사회상황과 노사관계로 보면 단순히 대학생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두 "농민공"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노동권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이 으면 최저기준도 갖추지 않고 자본에 의해 핍박받으며 일하는 일도, 자본이 모든걸 휘두르는 노사관계의 지나친 불균형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노동권(교육훈련

포함)과 사회보장이 으면 노동자는 자본의 횡포와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업의 방식(교육 훈련)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쌓는 것을 선택할 수도 습니다. 게다가 사회보장이 으니 실업기간 동안의 생활이 보장되지요. 이처럼 자본은 취업자의 수와 일할 권리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비용과 생산요소로만 대하겠지요.

차오커: 도농간 정체성 차이를 살펴보지요. 그들이 '도시인'이 되고 싶어할까요? 지금 비농민호적이 농촌호적의 사람들보다 어떤 점이 우세한데요? 도시호적으로 바꾸면 농촌의 경작지와 주택지를 잃어버릴 텐데 말이에요.

지평: 과거 비농촌호적의 사람들이 내로라하는 우위라고는 일자리와 사회보장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생활의 압박이나 퇴직으로 원래 받던 보장을 잃더라도 도시에서 일을 합니다. 개중에는 상황이 농촌호적의 농민공보다 안 좋은 경우도 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농지나 농촌주택지 같은 출로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위라니요. 농민공은 원래 땅이 없어요. 도시도 그들에게 땅을 얻어줄 수 없는데, 이들이 도시호적으로 옮기길 바랄까요?

십년 전, 농민공이 농촌땅을 도시의 직업이랑 사회보장과 바꾸는 것이 하나의 진보였다면 이제는 그런 좋은 시기가 다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농촌호적의 농민공이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에 들어오면 농민공문제에 하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농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삼농(역자: 농민, 농촌, 농업)문제의 해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의 땅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하려는 건 위험성이 너무 크지요. 게다가 농사일을 해본 경험도, 농작지도 없는 빠링허우, 지우링허우 농민공들도 상당수입니다.

차오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런 변화를 만드는데 어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요?

지평: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뜻이 는 사람들에게 생활방식을 바꿀 수 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전제는 우선 노동자 개인이 반드시 자신이 가진 역량을 잘 알

아야 하지, 앉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길 기다리거나 공정함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모든 불공정함은 야근수당이나 체불된 임금 같은 경제이익이 아니라, 사람의 도덕성과 가치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노동자 자신의 단결력과 조직력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힘이 모여야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차오키: 이 책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길 바라세요?

지평: 무언가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노동자의 인식을 돕는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용적인 정보와 문제의 진상을 알려줌으로써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독자들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으로 뜻 있는 노동자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변론할 수기를 바랍니다.

차오키: 언론은 이 방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평: 노동자들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대하고 보도함으로써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평등한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요.

작가의 말

이 책은 “자기 교육과 공론화 하기(自教育、共言說)”의 형식으로 쓰여졌다. 특징은 실용적이고(실생활에서 쓸 수 고), 방법론적(구체적인 방법과 방식)이며 도덕적(사람의 가치관)과 상호작용(책을 평가해 이메일로 보내 소통할 수도 고 다음 책에 실릴 수도 다)이다.

스스로의 고백

나는 선전에서 일하며 고생과 무지함, 무능함 속에서 나의 청춘을 보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진실 된 세상이 나에게 펼쳐졌음을 느꼈다. 그 후로 ‘사람은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와 같은 오랜 기간의 고민으로 고통 받지 않게 되었다. 그 때 느꼈던 희열과 후회를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의 기억은 서너 살 때부터 시작된다. 아버지에 관해 기억에 남는 일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들에게 혁명의 진상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이야기 해주던 것이다.

내 눈에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셨다. 농사일, 집짓기, 자전거 수리, 돼지잡기, 가구 만들기 그리고 인생의 도리에 관한 이야기까지 모두 할 줄 알았다. 뭐든지 스스로 해결하고, 이웃사람 모두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려 찾아오곤 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글을 배우지 않은 농민출신 아버지가 동료의 도움으로 3개월 동안 틈틈이 공부해 글을 익혔다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자동차 면허증을 땀과, 일곱 살에 꾸었던 ‘자동차를 운전해 이 지긋지긋한 땅 파먹는 생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첫 번째 꿈을 스물아홉에 이루었다.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70년 대 아버지는 당신의 두 번째 꿈은 아들들을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들아, 애비처럼 살면 안 된다. 난 무식쟁이에 못 배웠잖니. 너희들은 대학에 가야해. 대학에 붙으면 얼마든지 밀어줄께.” 극악의 구사회 속에서 살았던 아버지는 제대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어도 나이 손을 바라 볼 무렵 제 인생의 꿈 두 개를 모

두 이루었다. 하지만 나는 개혁개방으로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질 수 있던 시대에 살았지만 외지에 나와 16년 동안 일하며 꿈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농민공이 되어버렸다.

아버지는 나의 조그만 영웅이셨다. 어릴 때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었던 말들은 내가 성인이 되는 인생과정에서 항상 내 귓가에 울렸고 내가 인생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다.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들에게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사람은 성실해야한다." 이다. 서른이 넘어서야 나는 아버지가 말하는 '정직'이 그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았다.

읽는 법

이 책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도 되고 아무장이나 펼쳐서 읽어도 된다. 몇장씩 읽어도 되고 읽으면서 메모를 해도 된다.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하며 봐도 되고 목차에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읽어도 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생각해봐도 되고 읽은 후 느낌이나 생각을 적어 작가에게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 그러면 지평이 아마 그 글을 다음에 출판할 책에 실을 지도 모른다.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장의 "원고공모, 사진공모, 가수모집, 작곡가모집"을 참고 하면 된다.

청백창고(靑白倉庫)라는 책제목의 의미

청은 블루컬러란 뜻이다. 블루컬러란 제조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노동자란 농촌 출신 도시노동자 뿐 아니라 생산직에 종사하는 많은 대학생까지 포함한다. 백이란 화이트컬러란 뜻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실제로 화이트 컬러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청과 백'의 의미이다. 창고는 노동자들의 창고를 말한다. 창고 안에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와 수확한 "열매"가 모두 모여 있다. "청백창고"라는 책제목의 전체적인 의미는 블루컬러와 화이트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공구창고이자 열매창고라는 뜻이다.

노사관계의 불균형, 물가상승, 소득정체, 삶의 질 저하로 인해 많은 화이트컬러 계층과 블루컬러의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일부 화이트컬러의 수입은 노동시간이 긴 블루컬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블루컬러와 화이트컬러간의 차이가 점점 작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차이는 소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블루컬러와 화이트컬러는 많은 비슷한 노동문제를 안고 있고 차이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노동자인가? 노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가? 노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가? 노동 중에 만나는 문제들을 알고 싶은가?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가? 노동의 불공정함을 느끼고 싶은가? 어떻게 노동 상황을 변화시킬까? 청백창고로 오시라! 창고 안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구와 지식이 있고, 여러 열매가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공구와 열매는 모두 직접 ‘사용’하고 ‘맛봐야’ 된다는 점이다.

노동자라는 명칭

책에 등장하는 ‘노동자’라는 말은 블루컬러, 화이트컬러, 농민공, 이주노동자, 육체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인부, 퇴직자, 도시호적의 실업자와 대학생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한다.

대체로 ‘노동자’와 ‘농민공’이라는 두 단어는 외지에 나가 일하며 생계를 도모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농민공’이라는 단어는 어느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노동자’와 ‘농민공’이란 단어에서 차별의 뉘앙스가 풍기지만 이 두 단어보다 더 통속적이고 극명하게 노동자의 현실과 진실을 보여주는 단어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상기 두 단어를 주로 사용한 것은 두 단어를 동일시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환경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올해 중앙 1호 문건에도 ‘농민공’이라는 말이 여전히 등장했다. 사실 ‘농민공’이라는 말은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독특한 정의인데, 이제 보편적인 의미로 넓게 쓰이며 더 이상 단순히 도시로 이주한 농민만을 칭하는 말이 아니다. 노사관계의 심각한 불균형이 확산되고 격화되며 많은 직업전문학교생, 전문대생, 대학생들이 노동자(농민공)이 되고 있어 사실상 이미

‘우리 모두가 농민공’인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이 책이 여덟 부류의 독자를 겨냥했다는 의미이다. 여덟 부류의 노동자란

1. 노동자(농민공)
2. 외지에 나가 일을 하려는 중고등학생
3. 직업전문학교생, 중등전문학교생, 대학생과 개미족
4. 이미 회사(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5. 도시호적을 가지고 퇴직한 국유기업과 큰 단체의 노동자
6. 노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해결방안을 찾는 사람
7. 기업경영자
8. 노동단체와 연구자

대학생도 농민공이라고?

매년 500-600만 명의 대학생들이 일을 찾아 사회로 나온다. 이 중에는 운이 좋거나 연줄이 있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원하는 원치않은 노동자가 된다. 노동의 현실과 노사관계현황 때문에 취업을 한 대학생들은 그럭저럭 생활 할 수 있는 임금만 받으며 일하고, 일부 대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업자신세가 되고 만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농민공이라는 것이고 사실상 노동자이며 농민공 단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추세는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들도 노동 문제를 직시해야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이정도면 됐다라는 혼자만의 느낌이 아닌, 성공적인 ‘자기교육’을 할 수 있다.

책 주제의 구조

책에는 주제별로 글이 실려 있는데 대체로 한 주제에 한 페이지의 글을 할애했다. 간결하고 살아 있는 문제설명과 독자의 빠른 이해를 위해 페이지 구성을 다섯으로 나누었다. 첫 부분은의 주제이름으로, 문제의 명칭이다. 두 번째 부분은 요점설명으로,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뜻은 무엇인지 설명했다. 세 번째 부분은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이고 네 번째 부분은 만화나 이야기로 형상화

하였다. 다섯 번째 부분은 평론, 결론, 생각하기이다. 일부 페이지에는 만화와 고사, 재미 있는 이야기를 삽입하기도 했다. 지평이 아이디어를 내고 만화가가 그려 완성한 만화도 있다. 인용한 고사와 참고한 책의 내용은 책 마지막 부분의 ‘참고서적’에 명시했다.

자기교육과 공론화하기(自教育, 公言說)

노동자는 문혀 는 집단이다. 이들이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언론보도 중 임금체불로 돈을 요구하는 이미지이다. 살아 숨 쉬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는 비어 다. 이 비어 음은 임금체불보다 더욱 무섭다. 2억 4200만 명의 노동자들 가운데 열정과 꿈이 가득하고 재능과 능력을 겸비한 농민공들은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저 가난해서, 존중받지 못해서, 불평등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물론 존중하는 마음으로 농민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수도 기는 하다. 그러나 대체로 농민공 자신의 목소리를 낼 곳은 거의 없고 다른 이들에 의해 이야기되곤 한다.

역 단위 구성원의 집단이, 듣는 입장에서 ‘병어리’집단, ‘잃어버린 집단’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말 없이 듣기만 하는’ 상황이 지속된 결과, 개인은 자아의식을 상실하고 집단은 주체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 결과 노동자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적 결함과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노사관계 성립도 불가능해졌다. 사회는 농민공이 수동적으로 ‘듣기만하는’집단이 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자신을 교육하는 것을 허락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은 그들 자신 일이고, 타인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제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없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에 대해 말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일이 자신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역시 그것에 대해 말 할 책임이 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람이고, 같은 사회, 같은 지구에서 더불어 살고 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교육 말고도 목소리 내기가 필요한 것이다.

자기교육과 목소리 내기에서 자기교육이란 자신의 사상, 자아비판, 자아수립(조

직)이란 뜻이다. 책에서 농민공들의 자아교육(비판 포함)의 강도는 목소리 내기 편의 비농민공들보다 강하다. 사실 비농민공 근로자들은 비판이 아니라 좋은 뜻에서 하는 말들로, “이미 능력이 으니 이기적으로 살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자아비판은 농민공 개인으로 하여금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인식하게 한 후에야 진정한 자아, 실질적 자아, 개인적 자아와 집단 내에서의 자아를 향해 갈 수 는 것이다. 개인의 생명가치의식은 개인의 주체의식이 아닌, 집단의 주체의식을 기초로 한다. 집단의 주체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아무런 의미도 없다. 목소리 내기란 노사관계 중 각 분야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인식에서 출발해 농민공, 노사관계, 사회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한계와 이익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에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집단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는 가능성이 생긴다.

책의 장과 내용

이 책은 주로 노동상황, 도시생활, 개인발전이라는 세 주제로 구성되어 으며 9장으로 나뉘어져 다.

- 제 1 장 노동 편
- 제 2 장 업무 편
- 제 3 장 개인 편
- 제 4 장 도시기능(생활) 편
- 제 5 장 인생의 발전 편
- 제 6 장 성, 연애, 결혼 및 가정 편
- 제 7 장 270개 지식 편
- 제 8 장 노동 이야기 편
- 제 9 장 사회(노사관계)의 목소리 편

이 책의 내용은 노동을 하며 흔히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문제와 노동집단문제 그리고 인생의 국극적인 의의와 사람으로서의 도리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과 방법으로 생활 및 업무 중 부딪히

는 문제 해결 등을 더욱 많이 다루고 다. 왜냐하면 거창한 인생의 도리를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 상황과 어려움에 봉착한 노동자들이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의 7장에는 유명작가 외에 지평의 글도 다. 8장과 9장은 거의 기고자 본인의 글이다. 그 중 8장의 노동이야기 편에서는 허난, 후난, 쓰촨, 광둥, 푸젠, 윈난 호적의 노동자들이 각각 자신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써냈다. 9장 사회(노사관계)의 목소리 편에서는 정부부처, 노조, 기업, 언론, 전문가와 학자, 사회 유명인사들이 참여해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지평은 편집자로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편집했다.

삽화: 표지의 그림은 난두 광비아오 편집장(만화투어바 작가)의 작품이다. 그가 내민 표지그림 원고를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나올 뻔 했다. 그림은 장젠후이와 광저우미술학원 학생 몇 명이 그려주었다.

작가들의 신분: 이 책에 들어가는 원고는 공론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는 열개 업계 인사들로 구성했다. 각각 정부부처, 노조, 기업, 학계, 재계, 언론, 노동자(농민공), 대학생, 화이트칼라와 사회단체이다.

저작: 엮은이 마오위스, 귀권장관님, 왕통신부주석과 차오커 총편집장이 추천서를 써주었다. 그리고 편저 지평이 서언을 썼다. 각 장은 노동업무순서와 책의 목표에 따라 설정했다. 제 1장부터 7장은 주요내용으로 이주노동자가 일을 하기전에 준비해야 될 것, 노동중에 주의해야할 점과 노동 후 반성하고 배워야할 문제들을 포함하고 다. 그 중에는 실용적이고 방법론적인 이야기, 상식적이고 재미

는 이야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와 화나는 이야기가 모두 담겨 다. 제 8장은 청탁기고자가 직접 경험한 이주노동자 이야기이고, 제 9장은 사회 각 계 인사들의 농민공과 노사관계에 대한 공론화 내용을 담았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그 장에 대한 개괄을 넣어서 독자들이 그 장의 중심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게 도왔다. 마지막 부분은 “원고공모, 사진공모, 가수모집, 작곡가모집” 란과 작가후기, 명칭설명과 참고서적으로 구성되었다. 책은 약

15만자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11만자 정도는 지평이 쓴 글이고 24명의 기고자가 4만자를 써주었다.

책의 사상: 이 책은 우선 좋은 뜻에서 쓰여졌고 지식과 소통을 담았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방법론적이며, 도덕적인 책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호소하며 사상과 행동이 담긴 책이지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목적의 책이 아니다(교육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나는 '타인의 주관적인 교육 혹은 가르치는 자'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진다고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이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 한 말이다.

"우리 모두가 농민공(노동자)": 노사관계불균형과 실업의 일상화, 대학생 취업난, 사회보장 부재에다가 물가 및 집값 폭등과 사회문제가 겹쳐지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농민공(노동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농민공(노동)문제는 "우리 모두가 농민공(노동자)"문제로 확대되었다. '개미족'이 그러한 점을 증명한다. 이것이 이 책의 제목을 '청백창고'라 지은 이유 중 하나이다.

요즘 세상은 돈만 으면 책을 낼 수 있다. 이걸 내는 건 농민공이 되는 것보다 쉽다. 돈이 없다면 책을 내는 건 쉽지 않은데 게다가 돈도 없으면서 좋은 책을 내는 건 훨씬 어렵다. 자신에게, 이 책에게 그리고 독자와 이 책을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담당하기 위해 나는 이 책을 열심히 썼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한다. 초별원고를 쓴 후 많은 지도자들, 친구들, 지식인들에게 감수를 요청했다. 조언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아 형식면으로나 내용면으로나 언어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이 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많은 조언 가운데 받아들여 그에 따라 수정을 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다. 조언이 반영이 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모두 이 책이 탄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책에는 전문적인 노동자의 권리보호 관련 내용을 넣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책의 목적이나 페이지수 제한으로 모두 담기가 어려웠다. 그 부분은 아마 따로 후속출판 될 것이다.

정꾸양후아이 박사의 도움으로 이 책을 감수하긴 했으나 지평이 이 책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다.

2011년 5월 30일 선전(深圳)에서 지평

노동 이야기

저우수형. 남. 한족. 1978년생. 중졸, 쓰촨성 완위엔시 형중상인. 기혼. 딸 하나.
1995년 외지에 나와 노동을 시작했고 2006년 푸저우(福州) 10대 노동자로 선정.
2009년 소설 <중국식 민공>출판. 현 광저우시 총 노조 소속

취미, 특기: 당시, 송시, 음악, 문학창작. 사회공익활동, 평론 등
좋아하는 책:<천룡팔부>

자신에 대한 요구: 바른 몸과 마음. 자신보다 약한 사람 돕기

지금 하고 는 일: <중국식 민공>2·3편 저술

인생의 목표: 양심 고 인정받는 기업가, 혹은 양심 는 좋은 작가

기억에 남는 일: 추이용위안 선생님, 장샤오위 감독, 천귀광 선생과 출판기념식
에 참석한 일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은 아니어도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다

3년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중국식 민공>을 모든 중국인이 생각하고 공감
할 수 는 감동적인 장편드라마로 만들고 싶다.

사랑, 결혼, 가정관: 정이 어야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어야 결혼도 가능하
며, 결혼이 어야 가정이 생긴다. 세 가지를 합치면 책임감이 생긴다.

내 이주노동의 길

나는 1978년 12월 13일 저녁 쓰촨 북부 완위엔황충현의 한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 들었지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말이 있다. 하나는 엄마가 했던 "정의롭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정하지 않음을 두려워하라"는 초등학교 시절 왕광선생님의 말이다. 나는 두 분의 말을 듣고 앞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었다.

노동자로서의 길

1996년 4월, 집안사정으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고 푸저우로 가서 장장 15년의 이주노동자생활을 했다. 철이 없던 나는 처음에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꽤나 멋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타지에 나가 일하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 하는 말들도 매우 신기했다. 나는 외지에 나가 일을 하면 소몰이도 안 해도 되고 하릴없이 집에서 빈둥댈 일도 없고,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용돈도 드리고 동생 책도 많이 사줄 수 있을 줄 알았다. 심지어 외부세계가 나를 헐뜯어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꿈들은 푸저우에 온 다음날 산산조각났다.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집 떠나며 챙겨온 돈이라고는 고작 200위안이 전부였다.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는 것이 시급했다. 마침내 나는 플라스틱 공장일을 찾았다. 첫 월급은 없었다. 공장에서 숙식을 제공했었는데 한 달 하고도 열흘을 일하며 첫 달 월급은 받지 못하고 공장에 80위안의 빚까지 생겼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다른 플라스틱 공장으로 옮겼지만 반년동안 300위안밖에 받지 못했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압연공장에 들어가 막노동을 했다. 열여덟 열아홉이면 한창 키가 클 때였는데 만날 육체노동을 하다보니 하루 세 끼를 무지막지하게 먹어댔

다. 사장은 나를 보며 키는 가장 쪼그만 놈이 밥은 제일 많이 먹는다며 비아냥거렸다. 그 후로도 나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푸저우 각지를 떠돌아다녔다. 어떨 때는 내가 사장을 "버리기도"하고 어떨 때는 사장이 나를 "버리기도"했다. 배운 것 없는 내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적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는 가족들에게 하소연 할 수 없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집에 전화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일 잘하면서 건강히 지내고 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달 월급은 너무 적어서 그냥 다음 달에 부칠게요."

여러 해 동안 외지에 나와 일하며 나는 외지노동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혼자 노점상을 차렸다. 힘든 것 빼고는 공장에서 일할 때 보다 두 배 이상은 벌 수 있었다. 문제는 단속반을 뺏을 때이다. 알다시피 단속반은 변명의 여지도 없이 노점상만 보이면 무작정 때리고 부수는 '중국식' 단속을 한다. 영화 속 조폭들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된다. 결국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장일은 노점보다 돈이 훨씬 적었다. 게다가 내가 들어간 곳은 화학공업기업이라 독성이 강한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했고, 이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했다. 그렇게 1년 후, 공장에 미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전에 나는 공장에서 권고퇴직을 당했다.

기회 찾기

나는 항상 노동자 생활을 벗어날 궁리를 했고,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늘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업무 외 시간을 이용해 야간학교에서 컴퓨터와 업무자동화, 컴퓨터 수리, CAD그래픽 등을 모조리 배웠다. 나는 실용적인 기술만 가지고 으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언젠가는 꼭 컴퓨터 학원을 열어야겠다고 다짐했다.

2004년 판매직이라는 기회가 왔다. 외지노동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였다. 나는 외향적이고 아는 것이 많으며 말솜씨가 좋고 부지런했다. 판매원이 되는 데에 천

부적인 기질을 가지고 는 것이다. 일을 하며 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업무지식을 열심히 익혔다. 컴퓨터를 잘 다루던 나는 지역포럼에서 상품홍보를 할 때마다 내 능력을 십분 발휘했다. 나는 드디어 공장보다 네다섯 배는 높은 월급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며 나는 내 꿈에 한 발자국씩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나는 중고 컴퓨터 7대를 사서 2005년 7월 9일 컴퓨터 학원을 열었다. 당시 그 지역에 컴퓨터학원은 우리학원 하나밖에 없었다. 주변에 많은 젊은 이주노동자들은 학습과 오락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나는 학원비도 다른 곳보다 적게 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찾았고 나는 째짢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2006년에는 인터넷을 통해 빈곤지역 사람들에게 옷을 기부하기도 했다. 당시 푸저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수천 벌의 옷을 기부할 수 있었다. 사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바보가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지 못할 뿐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학원경영상황도 나빠져서 나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자 생활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노동자가 이렇게 힘들게 생활한다는 것을 알 수 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쏟아 붓고 얻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남는 거라곤 쥐꼬리만 한 월급이거나 노동으로 인한 질병과 상해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 늙어죽는 것일 것이다.

소설 출판

고민 끝에 나는 다년간 내가 쓰고 싶었던, 중국 농민공의 생존현황을 담은 책을 내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농민공을 보여주는 영화가 너무 적었고, 드라마는 우리 생활과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농민공 이야기를 직접 써서 디지털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중국식 민공>을 조금씩 써나갔다. 책 편저에 관한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하자 그들은 내가 도대체 무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시선은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나는 ‘니들

은 웃어라 나는 내 갈길 가련다'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글을 써갔다. 글쓰기 의욕을 불태우기 위해 나는 그간 써냈던 몇 만자의 글을 인터넷 여기저기에 올렸다. 컴퓨터 앞에는 “미국 SF영화 금지, ‘지주전투’ 게임 금지, 모기는 발견 즉시 잡을 것”라고 쓴 메모 한 장을 붙여놓았다. 적어도 매일 백 자씩은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겨우겨우 쓰다 보니 드디어 글이 완성되었다.

내가 쓴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사람들이 점차 내 글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일부 네티즌과 독자들은 내게 큰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었고 소설을 다듬는 것 뿐만 아니라 출판을 하는 것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다. 덕분에 나는 출판사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출판사는 농민공을 주제로 한 책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는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광주 현지 언론과 <봉황주간(鳳凰週刊)>에 내 이야기가 보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앙방송의 <추이의 세상이야기>의 요청으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졌다. 일주일 후 봉황위성방송의 출연제의를 받았다. 그 후 출판일을 하던 친구가 출판사와 나를 연결해주었다. 내 딸이 태어난 2009년, 드디어 <중국식 민공>이 탄생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의외의 수확

2010년 5월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광주 총 노조 회장이 나를 광주시 총 노조로 초빙한 것이다. 그들은 내 정신과 경험이 노조의 권리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광주 총 노조에서 일하며 총 노조를 통해 노동자의 생존환경과 생활을 개선하고 싶었다.

무협소설을 너무 많이 봐서인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늘 일종의 의협심 같은 것이 있었다. 항상 정의의 사도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강호의 생활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꾀왔다. 불의를 보고도 모두가 나서지 않는데 나까지 가만히 으면 이 사회는 발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지평: 가난한 농촌 출신 중졸 농민공. 그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농민공 생활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며 소설까지 썼다. 이것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 좋은 예이다. 이것은 어려움을 동력으로 삼고 경험을 지식으로 삼으며 고생을 수확으로 바꾼 비범한 예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아무리 내가 잘난 구석이 없더라도 자기 자신은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신을 발견하고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면 험박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천혜(陳雪).여.1986년생. 한족. 허난취현인. 전문대 재학(노동자 생활 중 독학으로 입학). 미혼. 키 170cm. 몸무게 52kg. 가족 6명. 2003년 선전 팩스콘사를 시작으로 생산라인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언론홍보직 종사. 이주 노동자 생활 7년.

취미, 특기: 웅변, 헬스, 수영

꿈: 우아하고 세련되며 자신을 사랑하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엘리트 화이트칼러

좋아하는 책: <감사할 줄 알기>

자신에 대한 요구: 시작을 말든지 시작했으면 최고로 잘하기

현재 하고 는 일: 언론홍보 공부

인생의 목표: 자신을 믿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자신을 완성하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2008년 할아버지, 아빠가 선전에 올라와 함께 설을 보낸 일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소박하고 적극적이며 낙천적이고 부드럽고 대범하다.

3년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4년제 학사학위를 따고 외국어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사랑, 결혼, 가정관: 사랑은 한결같이, 결혼은 충실하게, 가정은 책임감 게

비온 뒤 해가 뜬다

천췌 선전 이주노동자

내 이름은 천췌. 2003년 7월 열일곱이 되던 해, 나는 허난 난치우공업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의 추천으로 세계500대 전자제조업체인 팍스콘 테크놀로지그룹에 들어와 말단 제조업 사원이 되었다.

전화 한통이 평범한 일상을 바꾸다

2006년 2월 17일. “천췌, 전화 받아!” 한창 일을 하는데 작업장 보조매니저가 내게 전화가 왔다고 소리쳤다. ‘집에서 왜 작업장으로까지 전화가 왔지?’ 불안한 느낌이 급습한 가운데 나는 전화를 건네받았다. 둘째삼촌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삼촌이야. 너희 집 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엄마와 큰 이모가 크게 다쳤어! 지금 병원에 으니 얼른 가봐!”

“벽이 무너지다니요?” 나는 허둥지둥 휴가를 내고 집으로 가는 차에 몸을 실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속으로 엄마가 무사하길 기도했다. 상치우 쑤이현병원에 도착해보니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작은이모와 다른 친척들이 한 줄로 앉아 있었다. 둘째 동생은 나를 보자마자 내게 뛰어오며 대성통곡을 했다.

“언니, 엄마 돌아가셨어.. 우리엄마 돌아가셨다고!!” 동생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자 다른 친척들도 따라 울며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모가 뒤에 던 방문을 열었다. 흰 천으로 덮인 엄마의 누워 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게 우리 엄마인지, 나를 낳은 내 엄마가 맞는지, 매일 내 걱정을 하던 내 엄마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엄마를 향해 쓰러지듯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나는 병실에서 다른 부상자 여섯 명을 돌봤다. 18일의 휴가가 끝나자 나는 비통한 마음으로 선전에 돌아와 노동자 생활을 지속했다. 하

지만 이 18일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배고픈 생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빠와 어린 동생들, 병로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부상자 치료비로 생긴 빚더미.. 내 인생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렸다. <쓰레기더미에서 피어난 사랑>이란 글을 읽기 전까지는 말이다. 여주인공의 역경 속에서도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는 정신이 매우 감명 깊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반드시 할 수 있다.” 그 때부터 나는 정신 차리고 집안을 일으켜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돈을 벌기 위해 나는 사무직을 그만두고 생산라인으로 돌아갔다. 허구헌날 야근에 주말도 없었고 돈만 벌 수 으면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다. 월급이 들어오면 최소한의 생활비 50위안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빚을 감당하기에는 하염없이 모자랐다.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매일같이 고민했다. 심지어 몸을 팔아볼까, 피를 팔아볼까, 신장을 팔아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 하지만 모두 불법이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식권으로 우유를 산 후 되팔아 남은 돈을 챙기는 것이다. 나는 하루 생활비를 2위안으로 줄였다. 아침은 계란하나에 두유 한 잔, 점심은 빵 한 개, 저녁은 찐빵 하나로 때우고 남은 돈을 모두 우유를 사는 데에 썼다. 동료가 먹는 양이 갑자기 확 줄어든 날 보며 의아해 하길래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대충 둘러댔다. 그렇게 우유를 스무 병 모을 때마다 나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숙사 매점에 우유를 팔았다. 돈은 받자마자 저금해놓았다가 월급이 들어오면 같이 집에다가 부쳤다.

처음엔 할 만했는데 얼마 지나자 위가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 오후 세네 시만 되면 뱃속이 요동쳤고 두 다리가 떨리며 온 몸에 힘이 빠졌다. 기숙사에 돌아가면 룸메이트들이 주전부리를 먹는 것을 바라만보며 군침을 삼켜야했다. 밤에 배가고파 잠에서 깨는 일도 허다했다.

하루는 배가 고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동료가 먹다 버린 빵을 주워 먹었다. 몇 번 먹다보니 이 또한 괜찮은 ‘생존방법’이구나 생각했다. 음식물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배도 채울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안 들어갔다. 그리하여 매일 밤 나는 기숙사 각 층에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수 있는 건 모조리 꺼내먹었다. 다 먹지 못한 것은 비닐에 싸서 ‘식량이 떨어질 것’에 대비했다.

쓰레기통에서 먹다버린 음식물 말고도 공장 동료들이 버린 옷가지와 생활용품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활비 50위안도 절약할 수 있었다. 나는 주워온 옷가지와 침구를 모아 깨끗이 씻은 후 정리해 고향에 보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줍고 모아온 것들로 우리가족은 지독하게 추운 그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사람들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다

다른 사람이 먹다 버린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틴 지 일 년이 되었다. 2007년 나는 총 3만 위안을 집에 부쳤다. 이 한 해 동안 나는 400위안도 채 쓰지 않았다. 생활은 비록 고단했지만 나는 내 힘으로 집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 몇 년 만 더 고생하면 집안의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발각’되고 말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어느 때와 같이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을 찾고 있었다. 그 때 기숙사 관리자가 걸어오더니 내게 무엇을 하냐고 묻고는 나를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말했다. 나는 주워 동료들이 알면 나를 무시할까봐, 그리고 내 일터를 지키기 위해 관리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관리자는 다음날 우리부서 담당자에게 내 이야기를 모두 해버렸다.

부서 담당자는 내 상황을 알고는 전 직원을 동원해 내게 기부금을 전달해주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전에 있던 부서에서도 그렇게 기부금을 전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누를 끼칠 수 없었다. 나는 내 힘으로 집안의 빚을

값고 싶었다. 결국 부서 담당자는 자비를 털어 내게 만 위안이 넘는 돈을 쥐어주었다. 뒤이어 회사 노조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통해 우리집의 남은 빛 만 위안을 모두 갚게 해주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다. 사고가 막 났을 때 고향 병원에서는 치료비 일부를 면제해주었다. 주변의 친척과 이웃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주머니를 털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남동생의 반 친구들도 용돈을 한푼두푼 모아 직접 우리집에 ‘사랑’을 전해주기까지 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산산히 부서진 우리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재난은 인정사정없었지만 사람 사는 세상 속의 사랑이 우리집을 다시 일으켜주었다.

비 온 후 무지개는 특히 아름답다

눈 깜짝할 새 3년이 지나갔고 전혀 다른 생활이 내 앞에 펼쳐졌다.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해 좋은 분의 소개로 새장가를 가셨다. 남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입시 준비에 매진하고 다. 여동생은 중학교 졸업 후 내가 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고 연말이면 시집을 간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새로 인테리어 한 집에 들어가셨다. 삶이 날 보며 웃음 지었다.

이 시기 나는 생산직, 지배인 보조, 현장 IE엔지니어를 차례로 했었다. 매년 역할을 바꾸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 2008년 나는 자비로 전문대 과정을 공부했다. 지금 회사에서는 나를 사내 간행물 편집부로 발령냈다. 나는 앞으로 내 능력으로 생활의 목표를 이루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가 나에게 주었던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

돌아보면 괴로운 날도 고 감격스러운 날도 었다. 앞으로는 희망과 도전이 함께 할 것이다. 재난은 나를 절망에 빠뜨렸지만, 나를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기도 했다. 걸어갈 길은 아직도 멀고 해야 할 일도 아직 많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내일은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 믿는다.

삶에 감사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한다. 우리 미래에

축복이 가득하길! 모든 이에게 축복이 가득하길!

지평: 사실 생활이 아무리 고단해도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첫걸음일 수도 있다. 천체는 가장을 일으켜야한다는 걱정 때문에 쓰레기를 줍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쓰레기를 주으며 자신의 물질적 수요를 넘어서 발전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인생의 경지를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었다. 사람은 이런 독한 마음이 있고 목표하는 바가 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장청용. 남. 1973년생. 한족. 고졸. 쓰촨태생. 가족 다섯명(나, 부모님, 아이 둘). 이혼. 2000년 광저우에서 이주노동자 삶을 시작해 10년 동안 일했다. 첫 직업은 몰드작업. 현재 광저우 신쓰완문화광고회사 재직.

특기: 글쓰기와 자신의 깨달음을 글로 표현해내는 것을 좋아한다

취미: 사색하기, 글쓰기

꿈: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전원생활을 하는 것

좋아하는 책: <채근담>

자신에 대한 요구: 다른 사람보다 가난해도 좋으나 절대 다른 사람보다 우매하지 않을 것

지금 하는 일: 나만의 생각으로 우주와 생명을 파헤치고 싶다

인생의 목표: 후세에 남겨질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

기억에 남는 일: 네 살 때 나만의 추리로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밝혀내어 자랑스러웠다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똑똑하지만 성실한 사람

3년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먹고사는 걱정만 안 해도 족하다

사랑, 결혼, 가정관: 사랑, 결혼, 가정의 기초는 사랑이고 더 나아가 책임감이다. 양쪽이 최선을 다해야한다. 배신하면 세상이 변하니 모든 이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추한 농민공

장청용 광저우 이주노동자

나는 농민공이다. 농민공으로 산지 이미 10년이 되었다.

나는 노사갈등은 사측의 추악한 면 뿐 아니라, 농민공의 악행도 그 원인이
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민공의 낮은 자질과 안일함 때문에 임금이 오르기도 힘들
다. 그러나 농민공에게 자질이 낮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건 큰 위험성을 안고
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입방아에 올라 욕만 실컷 얻어먹을 수 기 때문이다.
농민공의 결점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농민공 자신이거나 언론이다. 오랫동안
안 농민공이란 거대한 집단이 여론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약자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반성이 없고, 자아발전을 하지 못한다면 농민공의 지위는 영원히 향
상될 수 없을 것이다.

세면장에서의 어리석은 복수

일부 공장에서는 세탁용 가루비누를 손 씻기 용으로 공장직원들에게 제공한다.
많은 직원들은 가루비누를 한 줌 가득 움켜쥐고 손을 씻는다. 그러나 그 비누 중
대부분은 물을 틀자마자 흘러가 버리고 진짜 손을 씻는데 사용하는 비누량은 아
주 소량에 불과하다.

나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다. 그들은 대부분 “사장이 이렇
게 쪼잔한데 세제라도 펄펄 써야지. 안 그러면 섭하지!” 라고 말한다. 전형적인
제 발등 찍기이다. 게다가 모든 사람이 손을 다 씻고 나면 팔팔 쏟아지는 수도꼭
지만 홀로 빈 세면대에 흐른다. 이것도 아마 쪼잔한 사장에 대한 어리석은 복수
겠지.

화장실 프리즘

공장의 화장실은 농민공의 자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

일을 보고나서 신문지로 엉덩이를 닦고는 변기에다가 버린다. 사용하지 않은 신문지까지 함께 말이다. 그래서 화장실은 항상 막혀 고 용변들이 쌓이고 쌓여 넘쳐흐른다. 누가 봐도 구역질나는 이 곳은 발조차 디딜 틈이 없다.

공장 화장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화장실 문화’이다. 벽과 문 곳곳에는 상스러운 말이 써져 거나 신체부위가 그려져 다. 글씨는 악필이지만 내용을 알아볼 수는 다. 그림은 어설프지만 그들의 강렬한 욕망은 느낄 수 다. 물론 사장, 담당자, 동료의 욕도 빠질 수 없다. 결국 화장실은 농민공의 가장 추한 면을 볼 수 는 곳인 것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빛을 쬐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세제, 샴푸, 치약, 물통 등이 기숙사의 공공물품이 되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일을 막 시작했을 때 나는 선심을 썼던 걸로 기억한다. 외지에 나와 일을 하다 보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도 으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활용품은 사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지 않았고 누구의 것이든 손에 잡히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져가 사용했다. 월급을 받더라도 도박을 하거나 여자는 살 지 언정 생활필수품은 절대 사지 않았다. 농민공의 추함은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다. 우리 농민공의 추함은 전 사회가 우리에게 가지고 는 부정적인 견해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악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매몰차게 대하고 멸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농민공의 이미지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앞서 말한 사례 가운데 당신의 추한 면이 포함 되어 다면 하루빨리 고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약자집단이 되는 악순환이 지속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농민공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농민공은 비판과 질책을 받아들여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자성하고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농민공은 영원히 추할 것이고, 영원히 멸시당할 것이다.

지평: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불공정함은 너무나도 많다. 이 농민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농민공을 비판하고 다. 말도 아주 난감하고 듣기 싫게 하고 어 화가 나고 알뜰다.

그러나 작가가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자. 만약 그렇다면 왜 말할 수 없겠는가. "나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 사람은 나의 적 이오, 나의 나쁜점을 말해주는 사람이 곧 나의 스승이다." 라는 말이 다. 비판 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비판할 줄 알아야 발전이 지, 듣기 싫은 말을 한다 고 다른 사람이 모두 틀린 것이 아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치고 나서 스스로 비판하고 개선할 수 는 힘을 길러야한다. 결국 이를 통해 타인의 존과 자신의 권익을 얻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당신 은 동정을 받을지는 몰라도 존중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발마사지집

아리따움. 안마사 (인터넷 기고, 이 글을 보면 작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사지 일을 좋아한다. 이 일은 내가 전에 했던 공장일 보다 훨씬 낫다.

먼저 이 일을 하면 아이큐가 낮아질 일이 없다. 상대하는 사람이 모두 살아 있는 사람이고 말도 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사람만 보더라도 사람을 추측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공장에서 기계만 보다보면 그러지 못할 것이다. 기계는 어떻게 보아도 그대로이니 그것을 계속 보더라도 아무 느낌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뎌지면서 멍청해진다.

둘째로 수입이 유동적이다. 서비스만 잘하면 손님들이 팁을 줄 수도 있고 이걸 모으면 꽤나 짭짤해진다. 하지만 공장은 그럴 수 없다. 사장은 당신의 일을 분, 초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추가소득이 올 수 없다. 늘어나는 수당은 자신을 착취하는 야근수당밖에 없다.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보너스도 없다.

셋째로 숨 쉴 틈은 없다. 일을 바꿔보아도 마사지 일을 할 때의 느낌은 갖기 어렵다. 공장은 감옥 같아서 자기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발언권도 없고 하루종일 내 자신이 작아질 정도로 훈계를 듣는다. 심지어 말 소리가 크다고 욕을 먹기도 한다. 마사지를 하는 곳은 훨씬 자유롭다. 손기술만 조금 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게다가 숙련되면 사장이 더 잘해준다. 손님이 칭찬을 하면 성취감을 금방 느끼고 내 생각을 표현하기도 쉽다.

내 옷차림이나 걸모습을 보면 대학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나도 인터넷 채팅을 하거나 휴대폰 문자를 보낸다.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뭘가를 배우고도 시험을 보고나면 거의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그다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최소한 기술이라도 있고 어떻게 사람을 서비스해야 할 지, 어떻게 해야 손님들이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전문 서비스의식을 가진 전문가이다. 대학생들은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나는 대학생들보다 경쟁력이 다.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나도 뭐라도 배워서 그들보다 강해질 것이다. 사실 사무실 프론트나 출납, 행정 업무 같은 것을 나에게 시키면 난 틀림없이 대학생보다 잘해낼 것이다. 대학생은 자기고집이 강해서 그것을 고치려해도 고치기 어렵지만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신문에서 블루컬러와 화이트컬러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내용을 보았다. 사실 발마사지도 나름의 차원이 다. 보통 아무렇게나 주무르는 것과 진짜 제대로 된 마사지와 건강자문이 결합된 마사지는 서로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다양한 화제로 대화할 수 는 능력까지 겸비하면 더 높은 차원의 마사지가 된다. 나는 가장 높은 차원의 발마사지는 단순한 마사지 뿐 아니라 마사지를 통해 건강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사람들과 감정과 정보를 교류할 줄 아는 것이라 생각한다. 상상해봐라. 손님 한 명과 두 시간 동안 말만 잘 통하면 그가 누구든 내 서비스로 나쁜 생활습관이 개선 될 수 다.이렇게 나의 영향력이 확인되는 것이다. 일부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사실 많은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다. 그래서 일을 할 때의 느낌에 어서 나는 공장일을 할 때나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성취감을 느낀다.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며 자신을 발견한다. 열심히만 하면 재미 다는 느낌이다. 나는 이 느낌을 소중히 생각한다.

지평: 이것은 평범한 안마사의 평범하지 않은 "발마사지 이야기"이다. 사람, 고민, 직업원칙에 어서 이 책의 본보기이자 한 농민공이 인간으로서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글이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독자적인 생각과 인생의 가치를 빚어냈다. 그녀가 빚어낸 것들은 우리 사회로 하여금 반성하고 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 여성 마사지사를 농민공 마사지사라 칭한다.

치우화러. 남. 한족. 1973년생. 고졸. 쓰촨성 빠중시 핑창현 치우자진인. 기혼. 딸
둘. 1996년 외지노동 시작. 1997년 선전에서 시공현장 공사를 시작했고 1997년부
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기를 써오고 다.

취미, 특기: 독서, 글쓰기를 좋아함. 평범한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고 독특한 사
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

좋아하는 책: <사기>

자신에 대한 요구: 최선을 다해 꾸준히 목표를 향해 노력하자

현재 하고 는 일: 공사가 끝나면 시간을 내서 일기를 정리해 책으로 내려한
다

인생의 목표: 스스로 도시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

기억에 남는 일: 동료인부들이 많은 공사비를 받고도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을
때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성가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착한일과 남을 돕는 일
을 잘한다

3년 후 할 수 는 일: 장편 소설 하나를 내고 싶다

사랑, 결혼, 가정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것. 가정은 국가의 축소판이다. 용
감히 책임을 짊어지고 희망을 심자

분양축하행사 일기

치우화러 메이플가든 시공현장 인부

분양축하행사

치우화러 2000년 8월 12일 메이플가든 시공현장

여기는 내가 선전에서 참여하는 여덟 번째 시공현장이다. 2000년 2월 이티엔빌리지 시공이 끝난 후 공사장에서 우리를 메이플가든 시공현장으로 보냈다.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이곳은 황무지였다. 몇 개월의 공사로 지난 8월에는 분양주택 중 건물의 반 정도가 완성되었다.

유럽스타일의 건물

메이플가든은 선전 최초의 유럽스타일 3층짜리 복식 고층아파트일 것이다. 외벽에 걸린 광고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다. 3층 복식 설계란 V자 계단이 세 개층 양 끝으로 걸쳐진 설계방식이다. 밖에서 3층으로 들어오는 문은 중간층에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좁은 바닥에 공간이 생겨 집이 허전하지 않고 실내가 넓어 보여 고층아파트에 으면서도 별장에 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런 집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가구에 따라 외형과 구조에 조금씩 변화를 주었다. 그래서 일반 주택보다 세밀화 된 시공이 더 어렵다.

우리 4동 목공팀은 70-80명 정도 되는데 아침 여섯시부터 저녁 여덟시까지 일을 한다. 쉬는 시간을 빼고 아침과 점심시간은 한 시간으로, 하루 열 두세 시간을 일한다. 메인 건물 건축이 절반도 채 안됐을 때 인테리어팀은 개발업자의 요구에 따라 결채(부속건물)와 각 모델하우스를 인테리어 했다. 비계에는 색색의 광고도 걸어놓았다. 구경꾼들과 구매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개발업자는 ‘메이플(단풍나무)’를 테마로 건물 남쪽에 는 미니공원을 아주 잘 꾸며놓았다. 인공재료로 장식한 커다란 ‘메이플’은 마치 오래되었지만 곧고 우아하게 뻗은 가을 단풍나무

처럼 고풍스런 자태를 뽐내며 하늘거린다. 낮에는 빨갛고 노랗게 나부끼고 저녁에는 조명과 살랑이는 바람 속에서 네온사인이 빛난다. 건물의 동남쪽 가운데에는 작은 광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계단 몇 개는 일이층을 나누는 테라스이다. 테라스 위에는 스카이 풀이 다. 테라스와 수영장은 ‘메이플’이 생기기 전에 이미 만들어두었다. 길가에도 꽃과 나무들을 옮겨와 녹화(綠化)를 시작했다. 길가 맞은편에서 여기까지 보면 이곳은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 단지처럼 보인다.

8월 11일에 다음날 하루는 반나절동안 공사를 중단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개발업자가 1층 광장과 테라스에서 분양축하행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이란다.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매우 기뻐했다. 몇 달 동안 공사시간 재촉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며 생긴 피로를 풀 수 있어서 좋았고 행사에서 하는 공연도 기대가 됐기 때문이다. 행사소식은 일주일전에 전해 들어 이미 우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었다. 동료들 중에는 예전에 이런 행사를 직접 본 사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듣기만 한 사람도 있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보안요원과 도우미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테이블은 테라스로, 꽃나무는 경관이 좋은 곳에 옮겨놓고는 바쁘게 입주자들을 맞이했다. 초대받은 입주자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 아이까지 동원해 온가족이 총출동한 집도 있었다. 광장의 주차공간이 모자라 보안요원이 나와서 바깥쪽 길에다 자동차를 세우도록 했다. 입주자들의 차림새를 보니 딱 봐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같았다. 아홉시가 되자 화려한 옷을 입은 공연팀이 차에서 내려 공연준비를 시작했다. 보안요원이 2미터 정도 되는 막을 들어올려 행사장과 바깥쪽을 분리시켰다. 인부들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다. 앞쪽의 공연을 봐보려 시도했지만 행사장 50미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보안요원의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비바람 속에서 매일같이 작업하는 우리의 그을린 얼굴과 볼품없는 차림새가 분양업자의 이미지에 누가 된다고 생각했나보다. 우리 중 누구도 행사장 가까이에서 공연을 볼 수가 없었다. 나무위에 올라가 보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도 끝내 보안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해 내려오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몇몇은 화를 내

거나 욕을 하며 돌아갔고, 또 몇몇은 저만치 떨어진 나무사이에 숨어 공연장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만 들었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간간히 환호소리와 박수소리도 들려왔다.

공연이 끝난 후 행운권 추첨이 있었다. 경품은 지하주차장 5년 주차권, 8년 주차권, 그리고 10년 무료주차권이였다. 당첨된 번호를 호명 할 때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추첨자 가운데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주최측이 해당 경품을 없애고 다음 추첨을 이어서 하자 아쉬움과 탄식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행운권 추첨이 끝난 후 행사장 앞에서 메이린수공장 밖 길가 잔디밭에 15미터 정도 되는 둥글고 빨간 천막에 테이블과 먹을 것을 준비해놓았다. 입주자들이 행사장에서 나오자 분양사무실 직원, 보안요원, 도우미들이 그들을 에워싸듯 오찬장으로 안내했다. 오찬을 마치자 행사가 대충 마무리 되었다. 차를 끌고 온 입주자들은 분양사무실직원과 도우미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돌아갔고 차가 없는 손님들은 주최측의 차를 타고 돌아갔다.

재주는 꿈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화가 난 인부들은 숙소에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해보지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공연소리에 도무지 잠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포커게임을 하는 사람, 삼삼오오 모여 수다도 떠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늘 분양축하행사 이야기까지 나왔다. 누군가가 한탄하며 말했다. “우리가 다 만들어놓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분양행사는 끼워주지도 않다니, 완전히 재주는 꿈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격이네”.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개발업자도 정말 못돼쳐먹었어. 자기네가 투기 할 수 있게 뼈 빠지게 고생한 사람이 누구데? 건물도 완성되기 전에 우릴 이렇게 나몰라라해도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지마. 우리가 뭐라고.. 우린 그냥 고달픈 노동자일 뿐이야. 오늘은 그들만의 행사날인 거고. 오랫동안 일했던 작업반 형님들도 아무도 초대 받지 못했잖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밖에서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노래를 따라부르기 시작하자 금세 화제가 바뀌었다.

이런 축하행사는 메인건물의 지붕을 덮을 때까지 네 번 진행된다. 매번 떠들썩하게 대규모로 진행되지만 저지를 당했던 첫 기억 때문에 나중에는 구경도 가기 귀찮아했다. 눈치 는 사람들은 멀리 숨어서 쉬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곤 했다.

지평: 일기는 일상을 기록해 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화의 힘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경험과 느낌, 생각과 지식을 기록하는 것. 작가는 다년간 일기를 쓰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다. 생각을 쌓고 세계를 알려면 일기쓰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일기를 쓰기 바란다.

마음이 쩡하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그런 감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두보의 <모옥위추풍소과가>에는 ‘어떻게 하면 천만 칸의 집을 지어 세상의 가난한 선비들이 웃는 얼굴로 풍우에도 끄떡없는 편안함을 누릴까’ 라는 구절이 나온다. 집은 이미 몇 천년이나 짓고 지만 집을 짓는 사람은 평생 집만 짓고 는 것이 현실이다.

허정원. 1963년생. 쓰촨량중허자완촌인. 한족. 중졸. 고등학교 때 병으로 학교를 자퇴하며 대학입시의 기회를 잃었다. 1987년 동네사람들에게 생산팀장으로 뽑혔다. 1983년 외지에 나와 2010년까지 건축현장에서 인부일을 했다. 1986년 고향사람과 결혼해 둘 다 외지에 나와 일했다. 슬하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9살 된 아들이 다.

허정원 어록

가정: 아이는 매일매일 자라고 부모는 늙는다. 그들은 늘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 아이를 키우고 집에서 농사도 지으며 살길 바란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아이: 나는 아들에게 자주 전화를 한다. 아이는 수화기를 통해서나 나와 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다. 재작년 여름휴가 때 아이를 현장에 데리고 온 적이 있는데 내가 철근콘크리트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 어떤 느낌인지 물었다. 아들은 이거 참 무겁다고 말했다.

질문: 이렇게 오랫동안 이주노동 생활을 했는데, 이런 생활이 가져온 것은 무엇인지요?

허: 가장 아쉬운 점은 늙은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건은 점점 비싸지고 농사 수입으로는 가족들의 지출을 전혀 감당할 수 없으니 일하러 외지로 나올 수 밖에요. 어쩔 때는 부모님 벌 면목이 없어요.

질문: 농사 수입으로 가정지출이 충당된다면 외지로 나와 일을 하실 겁니까?

허: 절대 그러지 않겠죠. 전 그냥 쓰촨 산동네의 아름답고 조용함이 좋아요.

질문: 농촌사람과 도시사람은 어떻게 다르지요?

허: 도시인은 자신의 소양이 매우 높다는 일종의 우월함을 가지고 습니다. 농촌사람들은 소양이 부족하다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지요.

질문: 이주 노동자 집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허: 생활이 고단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노동자들은 단결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 신세대 농민공들 말입니까?

허: 지금 젊은이들은 큰 꿈을 가지고 습니다. 공사현장에 들어오자마자 하도
급업자가 되고 싶어하고 바로 도급업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노력
없이 맛 는 것만 먹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할 수도 습니다.

22년의 노동자 인생과 공산노동팀

구술: 허정원(베이징 건설노동자). 정리: 리따퀸(원난대학 사회공작과 학생)

노동 경력

1983년 스무살 때 처음으로 외지에 나와 일을 시작했다. 안후이의 쑤현 시우마로에서였다.

허정원이 말했다.

“당시 하루 일당은 1위안(한화 약 170원)이었어요. 7시면 아침식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갔지요. 저녁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에 돌아갔고요. 점심으로 사이다에 찐빵이나 빵을 먹었어요. 그 때는 사이다도 귀한 것이어서 사이다를 먹는 것에 매우 흥분했어요.”

1990년 집안사정 때문에 창춘 건축현장 인부가 되다

허정원은 말했다.

“그 때는 공사외주가 없었고 하청업자라는 개념은 더더욱 없었어요.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모두 ‘회사직원’이었습니다. 회사는 달마다 월급을 주고 하루 8시간, 하루일당으로 치면 4.6위안이었고, 3개월 후에는 하루 7위안으로 올랐어요. 월급은 회사가 회계를 현장에 보내 인부들에게 직접 줬고 월급명세서도 끊어줬어요. 야근수당이랑 목욕비, 더위수당 등 보조금이 적혀 있었어요. 당시 밥값도 엄청 싸어요. 하루식대가 5마오였는데 찐빵 하나에 8편밖에 안하던 시대였어요.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는 10월까지 일하다가 1100위안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갔어요. 당시 1100위안이면 지금은 2만 위안정도나 되는 돈이었어요. 지금 일해도 못 버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993년 광둥 후이양으로 남하하여 에어드릴 일을 하다

에어드릴 일은 하루에 30위안으로 창춘의 일당보다 높다. 하지만 위험하다. 동

이 트기도 전에 밥 먹고 일을 시작해 하루에 열 두세시간을 일한다. 에어드릴을 작동하면 주변이 전부 분진으로 가득해진다. 하루 꼬박 일하고 나면 코, 입, 귀, 눈썹이 온통 분진으로 쌓이고 침까지 분진이 섞여 나온다.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마스크를 사서 썼다. 마스크를 끼지 않은 고향사람 일곱 여덟명이 날 보며 놀렸다. "교양 는 도시사람처럼 마스크를 썼는데 이도저도 아닌 사람 같네."

광동의 인상에 대해 묻자 허정원은 이렇게 말했다.

"돈만 벌려고 하면 옳은 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사회풍조가 워낙 좋지 않았어요."

1995년 두 번째로 창춘에 와서 건설농민공이 되어 철근짜매기 작업을 하다

두 번째로 창춘에 들어와 노동자 생활을 할 때 즈음 건설공사에 하청이라는 현상과 도급업자가 나타났다. "부서와 팀이 이미 회사로 구조조정 되었다." 벽돌쌓기 작업반의 '십장'이 '도급업자'로 변했다. 고정직과 일용직은 모두 안정된 직장이나 일거리가 없어졌다. 현장에서 밤샘작업을 시작했으나 야간추가수당은 없다. 월급도 달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25위안씩 계산해 연말에 일괄 정산한다.

1997-2001년 형제양주창업 실패를 맛보다

당시 한 양조광고가 한창 인기였다. 중앙방송에서까지 양조기술과 기기설비를 이전할 수 으며 술은 회수까지 책임진다고 광고했었다. 그래서 나는 동생과 함께 창업을 했다. 결국 생산한 술은 회수업체에 넘겨졌으나 돈 한 푼 받지 못했고 임시거주증을 만들지 않아 벌금을 무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2002년 이주노동 다시 시작. 베이징에서 건설노동을 하다

처음으로 베이징에 입성해 따썩구의 건물들을 보며 마음속의 벽차오름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베이징은 '어딜가나 좋구나' 생각했다. 도급업자는 쓰촨 이룡사

람이었다. "나중에야 이 사람이 속이 새까맣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홉 달이나 일 했는데 결국 2000위안밖에 받지 못했죠. 너무 슬퍼서 다음해에는 베이징에서 일 하지 말아야지 다짐했어요."

2004년 7월 두 번째로 베이징에 올라와 공사현장 '공산노동팀'발족

2004년 7월 허정원은 베이징에서 함께 건설 노동을 하던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그는 10명의 동료인부와 상의해 '공산노동팀'을 꾸리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 연락을 통해 일을 찾아 올 수 있고, 일감을 따내면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 인력회사와 단체로 공사하청계약을 체결한다. 하청업자가 없으면 일감을 따낸 사람에게 3%-5%를 수수료로 제공한다. 10명 중 6명이 이 생각에 찬성했으나, '공산노동팀'의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2007년 처남과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다. 처남은 하도급업자가 되다

허정원은 처남이 인부에서 하도급업자가 되자 사람도 변했다고 말했다. "인부 일 때는 도급업자는 탐욕스럽고 인부들을 착취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도급업자가 되고나니 어떻게 해서든 인부들을 많이 부러먹을 생각만 하고 돈은 조금 줄 궁리만 하더라고요"

2008-2009년 탕산 썬마오사에서 건설현장인부가 되다

"썬마오사는 가장 교활해요. 연말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설이 다가와서야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을 정산해주지요. 정산하는 날은 인부들에게 미리 그 날의 차표를 사도록 한 후, 떠나기 몇 시간 전에야 정산을 해줍니다. 인부들이 월급문제로 회사에 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2010년

현재 베이징에서 일용직을 하며 법정이 열리길 기다리고 고, 주변 동료인부들에게 법률을 알리고 다. 허정원은 말했다. "지금 법률은 아주 잘 되어 지만

제대로 실시하지는 못하고 어요. 법률이 하층민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습니다. 인력회사, 하청업자 사이 불합리성이 존재합니다. 건설회사는 직접 사람을 고용하여 건설회사의 경영비용을 줄이려 합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야합니다." 매번 시공사업을 하나씩 끝낼 때 마다 허정원은 상실감에 빠진다. 건물을 다 지으면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가 지은 건물에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타인의 운명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다

허정원은 말한다. "나는 나이 쇠를 바라보고 다.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10년 후 내 아이가 나와 일을 하더라도 이 사회는 여전히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내 아이는 또 나와 같은 환경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좋은 이미 그 자리에 다. 당신이 그 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영원히 종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지평: 일부 노동자들의 인생은 이런 상황과 유사하다. 주인공은 청춘을 모두 건설현장에 바쳤다. 그러나 그는 약삭같이 벌어 부를 영위하고 싶거나 타인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가 깨달은 '공산노동팀'이 그의 독립적인 사상이 되었고, 이것이 반짝이는 별빛이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에도 이런 가사가 지 않은가.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자들이여!"

정연핑. 여. 한족. 1963년생. 기혼. 본적은 광시 광청, 창씨 치우강 태생. 1981년 광둥성 사오관시 1중고등학교 졸업. 1982년 사오관에서 선전 서커우카이다 장난감공장으로 채용되어 장난감 옷 만드는 일을 하던, 개혁개방 1세대 공순이. 1989년 선전대학 법학과 졸업, 1994년 중국정법대학 연구생에 재직하며 법학 석사학위 수여. 198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서커우구 노조 여성노동권부 부장 재임.

취미, 특기: 야외활동(등산, 걷기), 촬영, 독서, 노래부르기, 춤추기

좋아하는 책: 잡지 <독자>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요구: 자기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참된 내가 된다

현재 하고 는 일: 즐겁고 천천히 사는 것

인생의 목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성공보다 더 현실적이다)

기억에 남는 일: 게스트로 <루위와의 만남>인터뷰에서 30년 전 이야기를 했던 것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일과 생활에 나만의 목표가 는 세련된 엘리트 여성

3년 후 하고 싶은 일: 내게 익숙한 곳을 떠나 누군가에게 익숙한 곳으로 갈 것이다

사랑, 결혼, 가정관: 사랑을 위한 결혼. 결혼과 가정은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언니가 동생에게

정연핑 1세대 농민공 공순이

좋은 여자는 인생의 여러 과정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친구와 책

어질고 총명하며 착해야한다. 남들과 잘 어울리고, 알뜰살뜰하며, 긍정적이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진실한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 세상이 변하고 많은 경험을 하다보면 갈 길을 잃기도 하고 누군가를 믿기 어려울 때도 단다. 그래도 어진마음만 가지고 으면 마음 편히 만족하며 살 수 을 거야.

친구와 책: 훌륭한 친구는 재산이다. 진실하고 박학하며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식견을 넓히고 지혜를 키워라. 네 영혼이 그와 닮아가고 빛나게 될 것이며 깨달음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라. 그들의 조언은 너의 잠재력을 깨워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이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책은 네 닫힌 마음의 창을 열어주고, 시야를 넓혀주며 인생을 풍부하게 해준다. 전공분야가 아니라면 실생활에서는 사실 심오한 내용의 책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독자>같은 책을 자주 보렴. 생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따뜻함과 감동을 느낄 수 을 것이야. 여자는 일생에 허물없는 단짝친구 한 두 명은 가지고 어야 한단다. 옷이나 미용에 관한 수다를 떨고, 남자친구 점수도 매기고, 마음속 비밀 이야기를 공유하고, 쇼핑하고 맛 는 것을 먹는 것은 여자들만의 행복이자 낙이야.

연애와 여자

이십대는 여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야.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간직한 사람을 찾아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하렴.

진도에 맞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4-6개월 동안 진지하게 만나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길거리도 거닐고 영화도 보렴. 매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감정과 태도를 살피고 그 남자의 가정과 성장환경, 생활습관, 경력과 친구관계, 가치관과 비전을 파악해라. 그 과정에서 둘만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 너의 진실 된 느낌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라.

지킬 건 지키기: 어떤 남자든 연애 초에는 연락도 자주하고, 밥도 사주고, 데려다주고 데리러오고 병간호도 해주는 등 모두 잘해준다. 조금하게 너무 마음 주지 마라. 똑똑한 여자는 교제를 시작할 때 "결혼 전 까지 섹스는 안 돼요" 라고 확실히 말하면서 불순한 목적이 는 남자들의 접근을 막는단다. '성적'요소가 없어도 너에게 계속 잘해주는 남자가 다면 한번 만나보아도 좋아. 진짜 너를 사랑하고 평생 너에게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너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야. 4개월 동안 '성적' 요구 없이 계속 너에게 잘한다면 교제를 고려해도 좋다. 연인사이로 확실히 발전하기 전에는 예의상 서로에게 돈을 쓰더라도 큰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방에게 막 빠졌다고해서 널 좋아하는 척하는 남자의 '지갑'이 되어서는 안 돼.

제대로 된 사람 고르기: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된다. 여자는 연애 중에는 바보가 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 가장 쉬운 방법은 4-6개월 동안 만나며 이야기해보고 밥도 먹고 거리도 거닐고 영화도 보는 거야. 서로 다른 곳에서 그의 태도를 살피며 그의 집안, 성장배경, 친구관계, 가치관과 비전을 파악해. 그리고 솔직한 느낌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야.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공간과 인맥을 넓혀주었지만 인터넷채팅만으로는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없어. 웹상에서 서로 알게 된 지 아무리 오래되고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모두 진실하지 않고 쉽게 믿을 수 없지. 인생은 아름다운 때도 있지만 매서운 풍랑을 만날 때도 기 마련이다. 좌절했을 때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네 영혼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렴. 친구들을 만나 단짝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너의 길을 계속 건도록 해라.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어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찾을 수 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라!

솔직하게 마주하기: 자기마음에 따라 거짓이 없는 진정한 서로를 느끼고 둘 사이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처리해라.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살펴라.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가 아니라 너에게 얼마나 잘하느냐이다. 자신에게 쓰는 돈은 아끼지 않으면서 여자친구에게만 인색한 남자는 이기적이야. 혼자만 낭만적인 남자, 그 낭만 여자친구와 함께 나누면 어디가 덧나니? 처음부터 너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남자는 아마 영원히 너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존재만으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사랑이 는가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을 포기해야하는 사랑도 다. 즐길 줄 아는 남자여야 여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다. 마음이 넓고 책임감과 용기가 는 남자여야만 마음 놓고 그와 결혼을 생각해 볼 수 다. 어떤 남자를 선택해 연애하고 결혼 할 것인지 잘 생각하고 결정하렴.

외로움 견디기: 외롭더라도, 널 사랑해주는 사람을 당장 만나지 못하더라도, 바람기 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도박을 즐기는 남자는 멀리해라. 결혼 적령기를 넘겼음에도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남자라면 멀리해라.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여자나 다른 사람한테는 까다로운 남자를 멀리하라. 돈 많은 나쁜 남자를 특히 멀리하라(던 돈이 없으면 좋은 구석도 사라진다). 그런 남자들이 너로 인해 변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네가 할 수 는 것은 그에게 맞추기 위해 네 자신을 변화시킬 만한지, 정말 그러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네가 진정으로 동경하는 ‘삼위일체’(선생님이자 사장이자 남편) 의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너보다 학식이 두터운 선생님 같은 사람, 너보다 돈을 좀 더 버는 사장님 같은 사람, 너를 여자로서 아껴주고 네가 그를 사랑하는 것 보다 너를 더 사랑해주는 그리 사람을 만나렴. 최소한 ‘남편’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해.(네가 찾는 사람은 선생님도, 사장도 아니야. 지금 진정으로 찾고 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마). 남편 역할도 하지 못하는 남자는 그냥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아.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의 성

여자들은 성지식과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해. 에이즈 등 성병을 예방하고 피임법을 배워 예상치 못한 임신을 사전에 막는 것도 중요해.

성지식: 오래 교제한 연인이더라도 사랑과 피임, 경제적 능력, 심신의 준비 없이는 성욕을 자제하고 순결을 지켜야 해. 죽을 때까지 만회할 수 없는 일도 어. 순결하고 자신을 아껴야 다른 사람도 너를 소중히 여긴다. 혼전 성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해. 다르게 보면 ‘성적 순결’을 잃었다고 해서 모든 걸 잃는 것은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져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라. 그 사람에게 네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이 너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다. 네가 이것을 깨닫고는 마음 쓸 필요 없는 그 남자를 떠난다 하더라도 너는 잘 살아갈 수 다. 뜻밖의 임신을 하면 깨끗하게 수습하고 몸조리를 잘 해야 한다.

부모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혼전 성관계시 반드시 피임을 잘 하여라. 뜻밖의 임신은 생활을 망치고 둘 사이를 갈라놓으며 여자 몸에 치명적이다.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다면 제대로 수습해 심신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혼 후 성생활: 사랑이 결여된 성관계는 동물적인 욕정의 발산으로, 추악한 행위이다. 사랑이 어야만 아름다운 성이라고 할 수 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섹스는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며 그래야만 사랑과 섹스가 하나가 될 수 어. 이는 부부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 즐거운 성생활은 부부 간 사랑을 더욱 두텁게 해주지. 성적 쾌락과 즐거움이 없으면 섹스와 사랑은 하나가 될 수 없어. 여자가 성을 불모로 남편을 협박하는 것은 남편의 무관심과 섹스에 대한 심리적 장애 혹은 기타 문제들을 야기할 수 는 어리석은 짓이야.

결혼과 가정이 행복의 원천

사랑과 결혼은 서로 다른 생활방식이야. 연애는 두 사람 간의 일일 수 지만 결혼은 두 가정간의 일이라 사랑의 연속이자 결과물로 봐야 해. 결혼은 여자 인생의 중대사로, 돌이킬 수 없다. 이혼을 할 수는 다. 그러나 이혼은 결혼의 목적과 귀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부담의 시작이다.

결혼은 현실적인 물질적 기초가 필요하지만 돈만을 위한 결혼은 안 된다. 심

년, 이십년이 지나면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결혼은 그렇지 않다. 사랑은 사치품이다. 으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결혼은 실제적인 생활이다. 사랑은 결혼을 결정할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 알아야 할 사실은 감정과 결혼 모두 두 사람의 것이라는 점이다. 사랑한다고 모든 걸 희생하고 책임지려하지 마라. 진짜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결혼은 서로 평등하고 존중하며 책임지는 것이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어느 한 쪽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한 여성은 결혼 전 순결을 지키던 것처럼 가정을 지켜야 한다. 결혼과 가정 생활에서 책임은 사랑보다 중요하며, 그 책임 속에는 사랑도 포함된다. 결혼은 남녀의 사랑의 서약이고 가정은 행복의 원천이다.

지평: 작가는 1세대 공순이이다. 이제 과거의 공순이들은 이미 ‘큰 언니’뻘이 되었고 경제, 지식, 사상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미 ‘성공’을 했다. 비록 오늘날 어린 동생들이 이와 같은 똑같은 성공을 이루기는 힘들겠지만 ‘큰 언니’가 말하는 인생의 조언은 시대가 지나도 통한다.

그렇다. 이 언니가 연애상대를 봐준다면 나쁜 남자들은 모두 꼬리를 감출 것이고, 아무리 좋아보이는 남자도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장탄권. 남. 1975년생. 한족. 후난인. 전문대졸(노동 생활 중 입학). 1994년 동관에서 이주 노동을 시작해 현재 동관에서 린생산 컨설팅 및 영어강사를 하고
다

취미: 독서

특기: 영어, 글쓰기

좋아하는 책: <독자>

일적인 면에서의 목표: 일을 좀 더 잘 해내자

자신에 대한 목표: 긴장을 너무 늦추지 말자

기억에 남는 일: 첫 출근 날

현재 공부하고 거나 하고 는 일: 린 생산방식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보통사람

사랑, 결혼, 가정관: 책임을 다하자

3년 후 하고 싶은 일: 더 좋은 차로 갈아타기

사회적 역할: 시사 논평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장탄권. 동관 이주노동자

어린 시절

아홉 살 때 부모님이 시켜서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했다.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처음으로 모내기를 하던 날은 마침 청명절이었다. 논물이 아직 차가워 밭이 꽤나 시렸는데, 오랫동안 허리를 굽혀 진흙 속에 손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보니 고통스럽기 그지없었다. 옆집 사람은 놀리듯이 웃으며 부모님께 말했다. “저런, 일손 하나가 늘었네요!” 아버지는 검게 그을린 얼굴로 나를 꾸짖으며 말했다. “일 안하면 밥도 없을 줄 알아!” 그 날 이후 나는 매년 논에 나가 모심기, 벼 베기, 김매기, 탈곡, 논갈이 등과 같은 농사일을 해야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참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다.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나이는 어렸지만 나는 공부를 통해서 이런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쉽게도 나는 일류고등학교에서 떨어져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부모님은 내가 대학에 들어갈 인물은 아니니 기술이라도 제대로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91년 나는 기술학교에 들어가 라디오 수리를 배웠다. 당시 열여섯이었던 나는 마음속으로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어. 꿈을 이루려면 기술을 배우는 길 밖에 없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죽을힘을 다해 공부했고 수리기술을 익혔다. 나중에 선생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내게 했던 말이 기억난다. “넌 꼴통들이나 들어와 양아치가 되어 나간다던 기술학교에 대한 나의 편견을 깨뜨려주었어”

인생의 첫 번째 성취: 영어 독학으로 합격에 이르다

1994년 초 기술학교 전자학과를 졸업하고 나는 후난에서 동관으로 올라와 홍콩계전력변압기공장 작업라인에서 솔더링을 했다. 이직을 싫어해서 계속 일하다 보니 기술직에서 엔지니어, 그리고 견본팀 팀장으로까지 조금씩 승진을 할 수

었다. 5년 동안 일을 한 후, 나는 남몰래,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다른 작업을 찾았다. 그 때만해도 월급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모두들 내 기술학교 학력만 보고는 내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거절했다. 내가 원하는 공장보다 높은 임금을 부르는 공장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 때 완전히 기가 죽었지만 이를 악물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전력변압기공장에서 일하며 나는 영어를 몰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 또한 앞으로는 영어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독학으로 영어과에 들어가겠노라고 다짐했다. 당시 몇몇 친구들은 대놓고 나를 비웃기도 했다. “중학교도 가난한 농촌에서 나온 네가 영어가 가당키나 하나? 게다가 미친 듯이 어렵다는 독학이라니. 아주 대단하네 대단해!” 그 말을 듣고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언기 어려울수록 가치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1년 후인 1999년, 가족과 친구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공장을 그만두고 광동외국어무역대학 영어 입시반에 등록했다. 기초가 너무 부족해서 수업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자 마음만 조금해졌다. 그런 와중에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라는 말은 내가 학습에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영어 읽기, 듣기, 쓰기, 독해에 전력을 쏟았다. 광동외대는 아름다운 백운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반 친구들은 백운산에 자주 올랐다. 그러나 나는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이 년여 동안의 밤낮 가리지 않던 공부에 대한 노력과 열정은 과연 헛되지 않았다. 2002년 중반,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었던 영어과 ‘대학졸업생’의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다. 부모님과 여동생도 매우 기뻐했다.

생산라인 농민공에서 ISO고문이 되기까지

전에 있었던 공장에서 1995년에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을 시행했었는데 나는 당시 우리 경영 고문을 상당히 동경했다. 그들은 우리 공장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경영 문제를 불과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경영컨설팅 회

사에 입사하고 싶어했고, 2002년 5월 드디어 경영컨설팅회사에 들어갔다. 그 후 열심히 노력해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후 나는 경영컨설턴트가 되었다. 당시 이 업계는 한창 뜨고 있었다. 영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영문 문서작업을 필요로 하는 고객도 많이 있어서 여기에서 일하는 8년 동안 내 영어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그 후 많은 기업들이 이 경영시스템을 채택 및 실시하며 그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점차 많아졌다. 나는 이 직업의 좋은 날도 머지않아 끝나겠구나 생각했다.

많은 동료들이 ISO 자문비용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들은 매일 기업 임원들 뿐 아니라 유명 CEO까지 만나 품질경영에 대한 조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료들 중에는 여가시간에 마작이나 포커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헛되이 시간을 쓰는 사람도 꽤나 다.

ISO고문에서 린 생산방식 고문이 되기까지

기업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며 앞으로는 공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량품과 재고량을 줄여 비용절감과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졌다. 린 생산방식(Lean Production Methodology)은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켜줄 방법 중 하나이다. 그래서 2006년에 나는 틈틈이 린 생산방식(6Sigma, TOC까지)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내가 비록 다년간 공장에서 일하고 자문업무도 했었지만 린 생산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린 생산은 기업에 눈에 띄는 개선효과가 있어야하고, 작은 조치로 큰 변화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란 말이 다시금 내 마음을 다잡아 주었고, 나는 베테랑 동료의 놀림거리가 될까봐 나는 조용히 업무시간 외에 린 생산라인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했으며 업계선배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린 생산에 관한 PPT발표도 하고 회사에서 린 생산 기술을 써먹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내가 산 린 생산방식 관련 서적만 해도 70권이나 된다. 일부 동료들은 내가 린 생산을 하고 있는 걸 보며 거리낌 없이 “네가 뭔데 린 생산을 해? 췌!” 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들을 보며 나는 이런 결론

에 이르렀다. 즉,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라고 말 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길한 예감은 결국 참혹한 현실이 되어 우리 곁에 다가왔다. ISO자문은 더 이상 이익을 얻지 못하는 직업이 되었고, 2010년 7월 1일 회사는 ISO자문업을 정식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약 80명의 ISO경영 컨설턴트가 모두 순식간에 실업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한 때 연봉 8만-15만 위안에 ISO자문 능력까지 보유한, 나이도 많아봤자 겨우 마흔 정도인 형제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새로운 일을 찾아야하는데 많은 기업의 부서 책임자는 모두 ISO능력을 보유하고 어서, ISO만 가지고 기업의 부서 매니저로 들어가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작은 기업의 매니저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경영컨설팅업계에 계속 남아 자니 린 생산지식이 없었다. 경영자문업체는 연봉 15만-25만 위안에 린 생산경영고문을 구했는데 필수조건이 린 생산, 6Sigma, TOC 기능 중 하나를 보유하고 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술을 배우려면 1년에서 1년 반 동안은 여기에만 매달려야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2년 반에서 3년은 투자해야한다. 나이 마흔의 남자들이 어떻게 1년에서 1년 반이나 돈도 벌지 않고 공부만 할 수 겠는가.

똑똑하기 그지없는 우리 사장님은 ISO자문 업무를 정리하기 전, 린 생산자문 회사를 열었다. 당시 경영컨설턴트를 구하는 것이 시급했고, 회사 임원이 나를 적극 추천해주었다. 회사가 ISO자문 업무를 정리하기 전에 나는 발령이 났고 원래 회사에서 옮겨온 사람은 내가 처음이자 유일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내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현명했고, 노력했으며,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노력하고 행동으로 현실을 바꾸려해야지 불평 불만만 하다보면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라는 말이 자꾸 생각난다. 열심히 제 일을 하다보면 재도약의 기회가 또 찾아온다.

지평: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번 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다.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느냐는 자기 손에 달려 있다. 인생을 다 흘려보내고 나서야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는다. 두 번째 인생은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더 독한 의지를 가지고 그에 더해 행동이 뒤따라야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노력만 다면 반드시 수확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좋은 예이다.

정신권. 남. 1971년생. 한족. 메이저우시인. 독학 대졸. 기혼. 아들 하나 딸 하나. 1995년 후면에서 이주노동 시작. 첫 직업은 회장비서. 현재 동관시 타이완 상인투자기업인협회 후면지부 부사무장, 후면 화교연합회 부주석, 시정협의회위원

취미, 특기: 읽기, 수영, 사회활동

꿈: 물질적인 것은 넉넉하지 않더라도 정신만은 충만해야한다

좋아하는 책: <물은 답을 안다>

자신에 대한 목표: 초심으로 사회 일을 하는 것

현재 하고 는 일: 독서모임을 만들어 영혼의 교류를 하는 것

인생의 목표: 평온을 찾고 싶다

인상에 남는 일 : 고등학교 졸업 20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20년, 다시 만날 인연’ 행사를 치른 것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인연을 따르는 사람

3년 후 어떤 일을 하고 을지: 오늘을 살며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것

사랑, 결혼, 가정관: 소통, 포용, 책임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정신귀, 정협 위원회 위원, 등관 중산층 화이트컬러

돈보다는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외지에 나와 일을 하는 목적은 돈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이지요. 인생의 여러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할 때 언제나 돈이 먼저라면,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눈이 멀면 돈 때문에 인생의 길과 나아갈 방향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몇 백 위안을 더 벌기 위해 오랫동안 해온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한 달에 몇 백 위안 더 번다해도 일 년에 고작 몇 천 위안이 많아질 뿐인데도 말이지요. 몇 천 위안 더 번다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몇 천 위안 덜 번다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때 나도 일자리 두 개를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습니다. 하나는 타이완 상인협회 간사자리였습니다. 면접 때 월급이 1000위안이 채 안 되며 합격여부는 회장님이 타이완에서 돌아오신 후에야 결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 기업의 매니저 보조였는데 월급이 2000위안이었고 바로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대부분은 월급 2000위안의 직장에 들어갈 것을 권했지만 나는 타이완상인협회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그 곳이 더 큰 무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지금 나는 15년째 이 곳에서 일하고 있고, 이 무대에서 많은 인생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당시 선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찮은 직위, 큰 발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성공해서 사장이 되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막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내가 타이완상인협회에 들어왔을 때 이름은 간사였지만, 실제로

는 허드렛일을 모두 책임지는 ‘하찮은 직위’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하찮은 직위’로 ‘큰 발전’을 해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직업에 아무런 의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거나, 직장을 돈 버는 곳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의욕이 쉽게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찮은 직위’에 있을 때 스스로를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타이완 동포와 내륙을 잇는 중국 내륙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표하는 것은 내륙 사람의 이미지이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나는 양안과의 평화교류에 공헌하는 사람이다.’ 매번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내 직업에 열정과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적인 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눈앞의 사리사욕이 사라지면서 일을 할 때에도 당당해지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인기와 능력까지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갖춰졌을 때 기회는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지, 혹은 사장이 될 수 있는지는 돈이 얼마나느냐 말고도 그렇게 될 만한 특유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의 자질이란 성공해서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일을 하면서 쌓이는 것입니다. 월급쟁이가 매일 지불한 노동력과 번 돈만 계산하면서, 노동력과 수입이 비례하지 않는 것만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큰일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슴에 더 큰 뜻을 품은 사람만이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찮은 직위의 큰 발전’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하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생활했던지 간에 새로운 곳에 가면 그 곳에 적응을 하여야 합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마음이 항상 붕 떠 있고, 직장에서는 소속감도 없어서 눈에 거슬리는 일들도 종종 마주합니다. 처음 포산에 올라왔을 때, 작은 장사로 돈은 좀 벌었지만 이 도시가 참 낯설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마치 나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내가 한 발짝 앞으로 내딛으려할 때 마다 무력감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곳에서 무언가를 해내려면 반드시 그 지역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이완 상인협회 간사일을 선택할 때에도 ‘타이완 상인협회는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다리이며, 이 다리가 나를 현지에 녹아들게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독서량이나 지식수준은 떨어지지만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의 문제나 타인의 단점만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시만 전국각지의 외지인들을 포용해야할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 역시 넓은 마음으로 자신이 속한 도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볼 때 발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일을 많이 해도 밀지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길 바라고 타인에게 인정받길 원하며, 노력하고 보답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급한데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을 많이 하면서 돈은 얼마 못 벌어 손해라고들 생각합니다. 사실 일을 많이 하면 돈은 적게 벌지라도 사람으로서의 상식, 업무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일에 부딪히고,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자주 묻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며 노동에 상응하는 임금 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하러 외지에 나와 사회에 뛰어들면 돈 말고도 인맥, 신뢰, 명예 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야말로 앞으로의 진정한 밑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일을 많이 하더라도 밀지는 게 아니다". 약간 야큐정신 같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진심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에 따른 성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도 여전히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원동력을 찾길 바랍니다. 도시는 여러분이 어 더욱 활기가 넘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주인이며, 모두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 발전으로 인해 생활의 리듬이 빨라지고 스트레스는 커지고 있습니다. 방황하느라 마음잡기도 힘들겠지만, 발걸음을 늦추고 마음을 다잡아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합니다. 그렇게 안정적이고 올바르게 인생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노동가: 노동의 꿈과 실현

작사: 지평 작곡가, 일반인 가수모집

나는 노동자
집 떠나 도시로 온 노동자
부푼 마음을 가진 노동자
공장(회사)에서, 공사판(길거리) 어디에서든 날 느낄 수 지
바쁜 나날 속에서 순진하게 웃고 떠드네

나는 노동자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일하고
내 꿈을 위해 부지런히 변해가네
내 길은 어디인가. 어디로 가야 변할 수 나
숙소 식당 차안 다람쥐 쳇바퀴 같은 나날
내 길은 어디인가. 왜 아무리 일해도 변하지 않나
어쩌다 내 젊음이 셋방에 야근에 노점에 공장에 가 나

노동자(농민공)은 도시화와 경제를 일으켰네
노동자(농민공)도 가치관을 가져야해
내 길은 어디인가. 왜 아무리 일해도 변하지 않나
내 길은 어디인가. 기어코 내 인생을 바꿔나가리
한숨 자며 땀 한 방울 닦고 눈물을 훔치네
눈을 뜨면 또 다시 끝없는 노동. 누구에게나 자유와 힘은 는 법. 열심히 인
생을 바꿔나가세
꿈은 내 앞에 어. 행동으로 이루어나가세
꿈은 내 앞에 어. 행동으로 이루어나가세